



2026. 3.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동향 & 이슈 | 제140호

NABO 경제동향 & 이슈

NABO Economy Trends & Issues

CONTENTS

국내경제 동향

금융시장 동향

해외경제 동향

경제이슈 분석 | 대미 투자 확대가 국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경제동향 & 이슈

총괄	정지은	경제분석국장
기획	박미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조정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황소정	경제분석관
작성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황종률	경제분석관
	박선우	경제분석관
	설경원	경제분석관
	황소정	경제분석관
지원	송재나	행정실무관
	임현민	자료분석연구원

- 「NABO 경제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 02-6788-377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경제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NABO

Economy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26년 3월호
통권 제140호

Contents

I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상황 평가.....	01
2. 소비	04
3. 투자	06
4. 중앙정부 재정지출	10
5. 대외거래	14
6. 소비자물가	17

II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19
2. 가계대출 및 부동산	22
3. 기업 자금조달	24
4. 환율 및 외환시장	26

III 해외경제 동향

IV 경제이슈 분석

대미 투자 확대가 국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32
------------------------------------	----

경제동향 종합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의 회복세, 수출 호조, 소비 및 설비투자의 증가 등 개선 움직임이 강해졌으나, 건설투자의 부진,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 등 불안요인도 혼재

■ 1월 「생산」은 제조업이 전월대비 감소,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보합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5.11월)0.7 → (12월)1.0 → ('26.1월)-1.3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5.11월)1.2 → (12월)1.7 → ('26.1월)-2.1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5.11월)0.5 → (12월)0.5 → ('26.1월)0.0

■ 1월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5.11월)-0.2 → (12월)-0.2 → ('26.1월)0.0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5.11월)0.2 → (12월)0.5 → ('26.1월)0.7

■ 1월 「소매판매액」은 내구재 및 준내구재 중심의 판매 증가로 전월대비 증가

- 소매판매액(전월대비, %): ('25.11월)-3.5 → (12월)0.6 → ('26.1월)2.3

■ 1월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에서 감소하였으나 토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건설기성액(불변, 전월대비, %): ('25.11월)1.8 → (12월)5.6 → (1월)-11.3

■ 1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모두 전월대비 증가

- 설비투자(전월대비, %): ('25.11월)2.0 → (12월)-4.3 → ('26.1월)6.8

■ '25.11월 「중앙정부 총지출」은 누계기준 전년대비 59.9조원(11.5%) 증가

- 총지출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5.9월)56.3 → (10월)60.6 → (11월)59.9
- 경상지출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5.9월)55.8 → (10월)60.3 → (11월)59.9
- 자본지출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5.9월)0.6 → (10월)0.3 → (11월)-0.04

■ 2월 「무역수지」는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호조로 155.1억달러 흑자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2월)13.3 → ('26.1월)33.8 → (2월)29.0
- 수입(전년동월대비, %): ('25.12월)4.6 → ('26.1월)11.6 → (2월)7.5
- 무역수지(억달러): ('25.12월)121.5 → ('26.1월)87.2 → (2월)155.1

■ 2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2.3 → ('26.1월)2.0 → (2월)2.0

경제동향 종합

■ 2월 「국고채금리」는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

- 국고채금리(3년물, 월평균, %): ('25.12월)3.01 → ('26.1월)3.04 → (2월)3.17
- 금리차(국고채 3년물-기준금리, bp): ('25.12월)51 → ('26.1월)54 → (2월)67
- 회사채금리(3년물 AA-, 월평균, %): ('25.12월)3.50 → ('26.1월)3.55 → (2월)3.72

■ 2월 「코스피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3월 들어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코스피지수(월말, 1980.1.4.=100): ('25.12월)4,214.2 → ('26.1월)5,224.4 → (2월)6,244.1
-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10만주): ('25.12월)4,004.6 → ('26.1월)5,500.1 → (2월)10,484.5

■ '25.12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

- 가계대출(조원): ('25.10월)1,321.7 → (11월)1,325.9 → (12월)1,326.7
- 주택담보대출(조원): ('25.10월)897.7 → (11월)901.4 → (12월)905.0

■ 1월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상승, 「주택매매거래량」은 전월대비 감소

- 주택매매가격지수(전월대비, %): ('25.11월)0.24 → (12월)0.26 → ('26.1월)0.28
- 주택매매거래량(건): ('25.11월)61,407 → (12월)62,893 → ('26.1월)61,450

■ '25.12월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5.1조원 증가

- 기업대출증감액(전년대비, 조원): ('25.10월)49.2 → (11월)53.8 → (12월)55.1
- 기업대출잔액(조원): ('25.10월)1,901.2 → (11월)1,910.8 → (12월)1,902.6

■ 1월 「주식 및 채권발행」은 회사채, 단기사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주식·회사채(조원): ('25.11월)21.9 → (12월)18.0 → ('26.1월)17.7
- CP·단기사채(조원): ('25.11월)166.3 → (12월)178.8 → ('26.1월)154.7

■ 2월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나,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큰 폭 상승

- 원/달러 환율: ('25.12월)1,434.9 → ('26.1월)1,427.0 → (2월)1,424.5
※ 최근 원/달러 환율: (3월3일)1,435.4 → (3월10일)1,493.1 → (3월11일) 1,472.8
- 원/달러 환율 변동성(%): ('25.12월)9.3 → ('26.1월)10.4 → (2월)12.4

■ 2월 「외환보유액」은 전월대비 증가

- 외환보유액(기말기준, 억달러): ('25.12월)4,281 → ('26.1월)4,259 → (2월)4,276
- 외환보유액 증감액(전월대비, 억달러): ('25.12월)-26.0 → ('26.1월)-21.5 → (2월)17.2

주요 경제 지표

(전기대비, %, 원)

	2024			2025					2026	
	연간	3Q	4Q	연간	1Q	2Q	3Q	4Q	1월	2월
전산업생산	1.6	-0.4 (0.5)	0.9 (1.0)	1.1	0.2 (0.3)	0.3 (1.0)	0.9 (3.6)	-0.7 (-0.3)	-1.3 (4.1)	-
제조업생산	4.3	-0.3 (2.2)	2.2 (4.1)	3.0	0.8 (2.8)	0.9 (3.5)	1.4 (8.1)	-3.4 (-2.0)	-2.1 (7.2)	-
서비스업생산	1.3	-0.2 (0.3)	1.1 (1.1)	2.0	0.3 (0.9)	0.4 (1.6)	0.7 (3.2)	1.2 (2.1)	0.0 (4.4)	-
소매판매액	-1.9	0.4 (-1.4)	-0.6 (-1.8)	0.3	0.6 (-0.8)	-0.6 (-0.1)	1.2 (1.6)	0.6 (0.9)	2.3 (0.1)	-
건설기성액	-4.6	-4.6 (-9.0)	-4.6 (-9.5)	-16.4	-7.2 (-21.1)	-2.6 (-17.3)	-0.8 (-11.9)	-3.8 (-14.8)	-11.3 (-9.7)	-
설비투자지수	3.0	6.0 (11.4)	1.8 (5.6)	1.2	-2.2 (5.4)	0.3 (5.5)	0.6 (1.2)	-3.9 (-6.3)	6.8 (15.3)	-
수출(통관)	8.1	10.5	4.2	3.8	-2.3	2.1	6.5	8.4	33.8	29.0
수입(통관)	-1.7	6.2	0.9	0.0	-1.3	-1.7	1.6	1.4	11.6	7.5
경상수지(억달러)	1,000	263	321	1,231	195	284	360	392	196	-
소비자물가	2.3	2.1	1.6	2.1	2.1	2.1	2.0	2.4	2.0	2.0
취업자수 증감 (천명)	160	146	52	193	155	207	217	195	108	234
실업률	2.8	2.2	2.8	2.8	3.4	2.8	2.2	2.9	4.1	3.4
원/달러환율	1,364	1,320	1,470	1,422	1,467	1,356	1,402	1,435	1,427	1,424
국고채금리(3년)	3.1	3.0	2.8	2.6	2.6	2.4	2.5	2.8	3.1	3.2

주: 1.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수출 및 수입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매매기준율 기준

4. 취업자수 증감은 전년동기대비

5. 국고채금리는 기간 평균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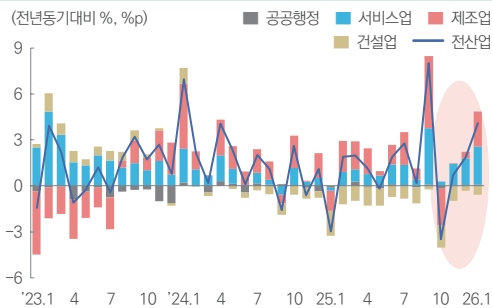
CHAPTER

01 경제상황 평가

■ '26.1월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의 회복세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개선 움직임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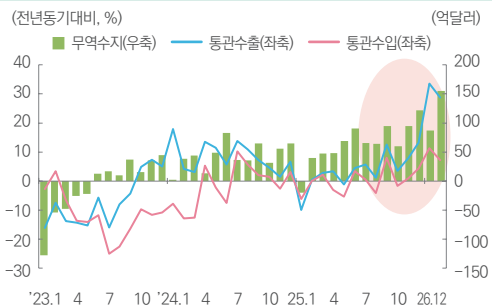
- 업종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나 건설업은 여전히 부진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5.11월) 0.7 → (12월) 1.0 → ('26.1월)-1.3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1월) 7.9 → (12월) 13.3 → ('26.1월) 33.8 → (2월) 29.0

| 그림 1 | 전산업 생산 증가율



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제시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여도를 산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2 | 수출입(통관)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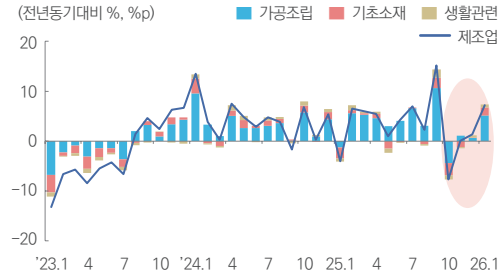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 「생산」은 제조업은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은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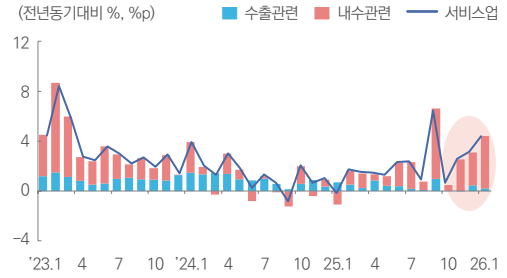
- 다만 전월대비로는 1월 중 제조업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보합
 - '26.1월에는 12월의 높았던 생산수준, 반도체 설비조정 등으로 증가율이 일시 하락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5.11월) 1.1 → (12월) 1.5 → ('26.1월)-1.9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5.11월) 0.5 → (12월) 0.5 → ('26.1월) 0.0

| 그림 3 |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



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제시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여도를 산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4 |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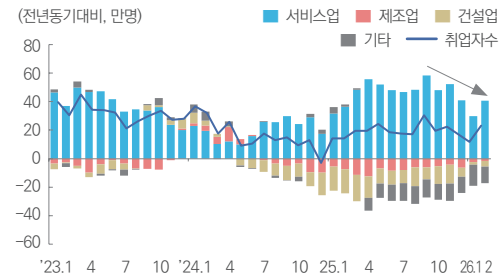


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제시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여도를 산출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회예산정책처

■ 「취업자 수」는 '26.2월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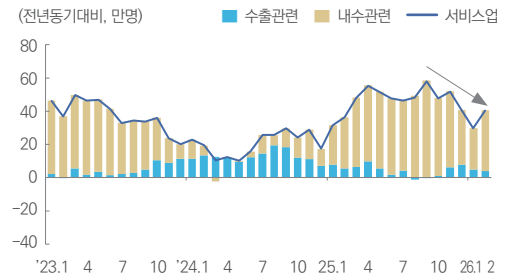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내수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던 서비스업에서 증가 폭이 축소
 - 전산업(전년동월대비 증감, 만명): ('25.12월)16.8 → ('26.1월)10.8 → (2월)23.4
 - 제조업(전년동월대비 증감, 만명): ('25.12월)-6.3 → ('26.1월)-2.3 → (2월)-1.6
 - 건설업(전년동월대비 증감, 만명): ('25.12월)-6.3 → ('26.1월)-2.0 → (2월)-4.0
 - 서비스업(전년동월대비 증감, 만명): ('25.12월)40.7 → ('26.1월)29.7 → (2월)40.4

| 그림 5 | 취업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 그림 6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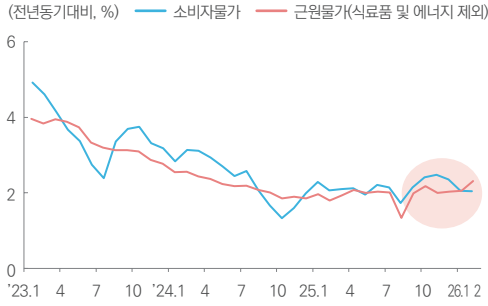


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창고·통신업을 수출관련 서비스업으로, 그 외 서비스업을 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
 자료: 국가데이터처

■ 「소비자물가」는 '26.2월 2.0% 오르며 두 달 연속 물가안정목표 선에서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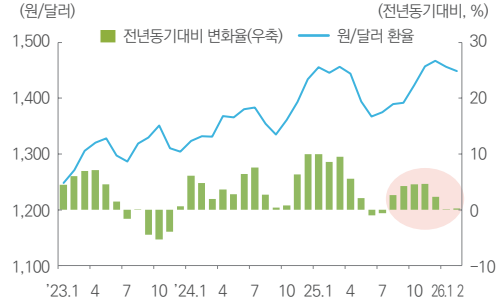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보험료, 공동주택관리비 등을 중심으로 2.3% 상승
- 금년 들어 2월까지 원/달러 환율 수준이 소폭 낮아지며 상승 폭도 축소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2월)2.3 → ('26.1월)2.0 → (2월)2.0
 -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2월)2.0 → ('26.1월)2.0 → (2월)2.3
 - 원/달러환율(전년동월대비, %): ('25.12월)2.3 → ('26.1월)0.0 → (2월)0.3

| 그림 7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그림 8 |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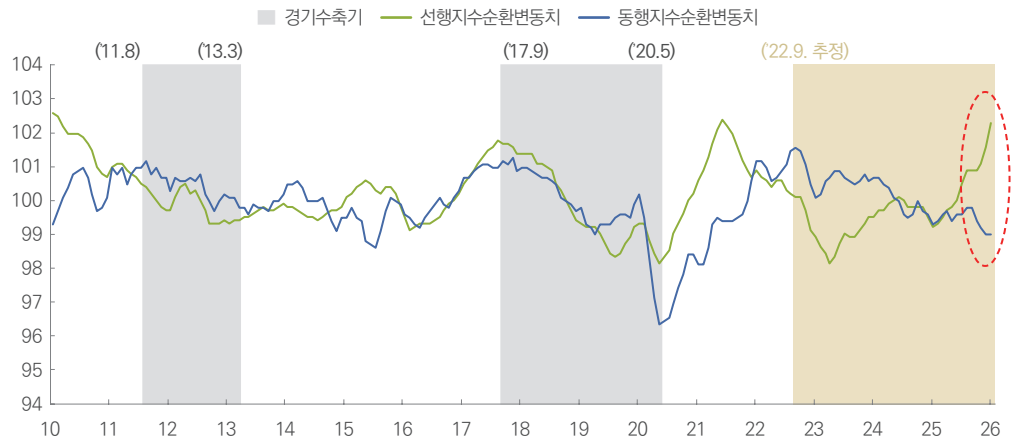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1월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99.0)는 서비스업생산지수, 수입액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지수 등에서 감소하여 전월 수준 유지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5.11월)-0.2 → (12월)-0.2 → ('26.1월)0.0
- 반면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2.3)는 건설수주액, 코스피,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7p 상승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 ('25.11월)0.2 → (12월)0.5 → ('26.1월)0.7

| 그림 9 |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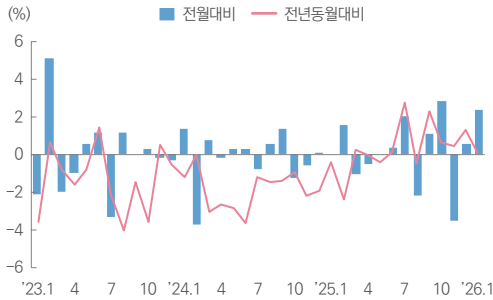
-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4) 2022년 9월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경기정점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 1월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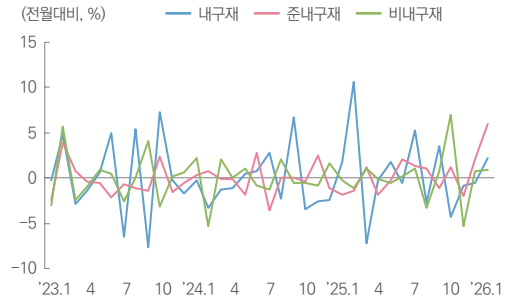
- 소매판매액은 내구재 및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
 - 소매판매액(전월대비, %): ('25.11월)-3.5 → (12월)0.6 → ('26.1월)2.3
 -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액(전월대비, %): ('25.11월)-4.0 → (12월)0.7 → ('26.1월)2.9

| 그림 10 |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11 | 내구연한별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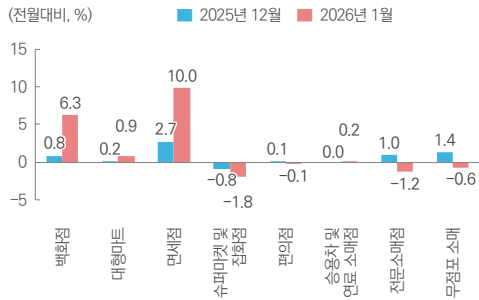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내구재는 통신기기 및 컴퓨터, 가구 등의 판매 증가로 전월대비 2.3% 증가
 - 내구재(전월대비, %): ('25.11월)-0.8 → (12월)-0.6 → ('26.1월)2.3
 - 승용차(전월대비, %): ('25.11월)-0.6 → (12월)0.5 → ('26.1월)-3.8
 - 통신기기 및 컴퓨터(전월대비, %): ('25.11월)-3.2 → (12월)-5.7 → ('26.1월)7.0
 - 가구(전월대비, %): ('25.11월)3.4 → (12월)1.2 → ('26.1월)2.3
- 준내구재는 의복 등의 판매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6.0% 증가
 - 준내구재(전월대비, %): ('25.11월)-2.0 → (12월)2.0 → ('26.1월)6.0
 - 의복(전월대비, %): ('25.11월)-3.1 → (12월)2.4 → ('26.1월)9.6
 - 신발 및 가방(전월대비, %): ('25.11월)2.0 → (12월)2.6 → ('26.1월)-1.4
- 비내구재는 음식료품이 감소하였으나 화장품, 차량연료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9% 증가
 - 비내구재(전월대비, %): ('25.11월)-5.3 → (12월)0.8 → ('26.1월)0.9
 - 음식료품(전월대비, %): ('25.11월)-10.8 → (12월)1.0 → ('26.1월)-0.1
 - 차량연료(전월대비, %): ('25.11월)0.4 → (12월)-0.3 → ('26.1월)3.7
 - 화장품(전월대비, %): ('25.11월)3.7 → (12월)4.0 → ('26.1월)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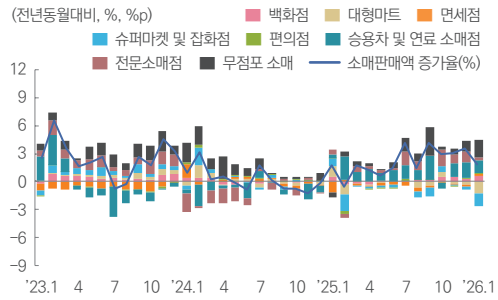
- 소매업태별로는 백화점(6.3%), 면세점(10.0%), 대형마트(0.9%) 등에서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슈퍼마켓 및 잡화점(-1.8%), 전문소매점(-1.2%), 무점포 소매(-0.6%) 등에서 전월 대비 감소

| 그림 12 | 업태별 소매판매액 증가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13 | 업태별 소매판매액 증가율 기여도



주: 경상금액 기준 소매판매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에 대한 업태별 기여도(%p)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소비자심리지수」는 2월 중 전월대비 1.3p 상승한 112.1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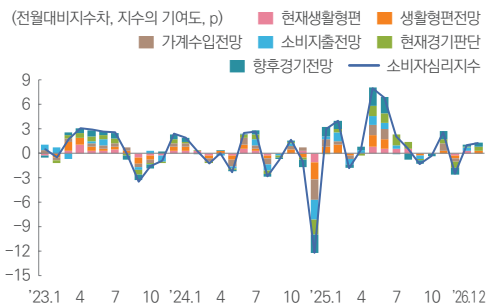
-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의 6개 세부지표로 구성
- 현재경기판단(95, +5) 및 향후경기전망(102, +4)이 개선되며 전월대비 상승
 - 소비자심리지수: ('25.12월)109.9 → ('26.1월)110.8 → (2월)112.1

| 그림 14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전년 12월)를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그림 15 | 소비자심리지수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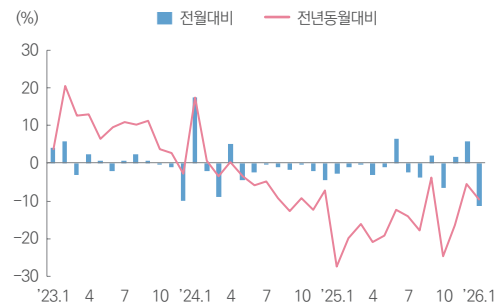
주: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대비 지수차(p)에 대한 구성 지수별 기여도(p)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가. 건설투자

■ 1월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에서 감소하였으나 토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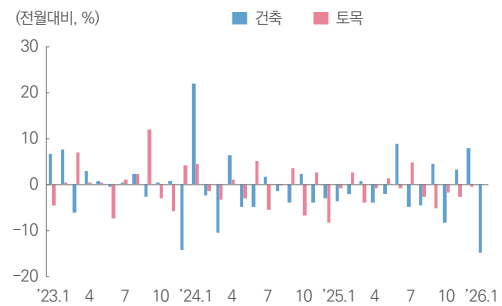
-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0.0%)에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건축(-15.0%)에서 크게 감소하며 전월대비 11.3% 감소
 - 건설기성액(불변, 전월대비, %): ('25.11월)1.8 → (12월)5.6 → (1월)-11.3
 - 건축기성액(불변, 전월대비, %): ('25.11월)3.4 → (12월)7.8 → (1월)-15.0
 - 토목기성액(불변, 전월대비, %): ('25.11월)-2.7 → (12월)-0.6 → (1월)0.0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감소세 지속
 - 건설기성액(불변, 전년동월대비, %): ('25.11월)-16.6 → (12월)-5.5 → (1월)-9.7

| 그림 16 | 건설기성액(불변)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17 | 공종별 건설기성액(불변) 증감을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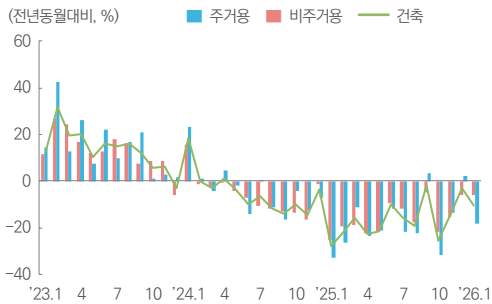
■ 1월 「건설기성액(경상)」^[1]도 전 부문에서 감소세가 지속

- 건설기성액(경상)은 전년동월대비 8.3% 감소
 - 건설기성액(경상, 전년동월대비, %): ('25.11월)-15.3 → (12월)-4.0 → (1월)-8.3
- 건축부문은 비주거용과 주거용의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10.7% 감소
 - 건축기성액(경상, 전년동월대비, %): ('25.11월)-14.6 → (12월)-2.8 → (1월)-10.7
 -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5.11월)-15.2 → (12월)-5.9 → (1월)-5.8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5.11월)-13.5 → (12월)2.0 → (1월)-18.4

[1] 세부 공정에 대한 건설기성액 동향을 경상 금액을 기준으로 파악(불변기준 건설기성액 세부내역은 공표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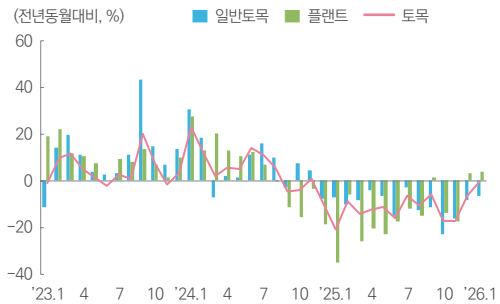
- 토목부문은 일반토목, 조경공사 등에서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0.6% 감소
 - 토목기성액(경상, 전년동월대비, %): ('25.11월)-17.4 → (12월)-6.6 → (1월)-0.6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5.11월)-16.5 → (12월)-8.5 → (1월)-6.5
 - 조경공사(경상, 전년동월대비, %): ('25.11월)-31.2 → (12월)-12.8 → (1월)-11.2
-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에서 감소
 - 공공(경상, 전년동월대비, %): ('25.11월)-10.7 → (12월)-4.1 → (1월)0.0
 - 민간(경상, 전년동월대비, %): ('25.11월)-16.2 → (12월)-4.3 → (1월)-10.3

| 그림 18 | 공종별 건축기성액(경상)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19 | 공종별 토목기성액(경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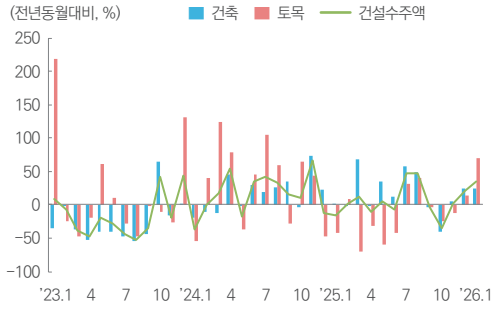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건설경기동향조사」

■ 1월 「건설수주액(경상)」은 전년동월대비 35.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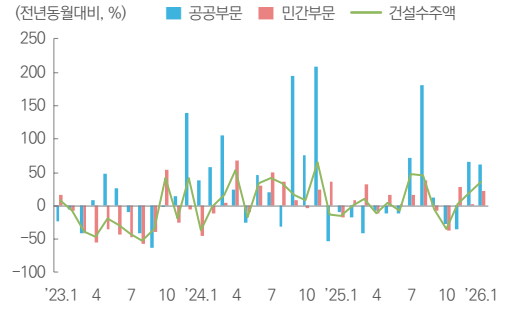
- 공종별로는 건축과 토목 수주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
 - 건설수주액(전년동월대비, %): ('25.11월)2.2 → (12월)20.9 → (1월)35.8
 - 건축수주액(전년동월대비, %): ('25.11월)5.5 → (12월)24.3 → (1월)24.1
 - 토목수주액(전년동월대비, %): ('25.11월)-12.4 → (12월)13.5 → (1월)70.5
-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수주가 모두 증가
 - 공공(전년동월대비, %): ('25.11월)-34.0 → (12월)66.5 → (1월)62.2
 - 민간(전년동월대비, %): ('25.11월)29.1 → (12월)1.1 → (1월)21.9

| 그림 20 | 공종별 건설수주액(경상)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21 | 발주자별 건설수주액(경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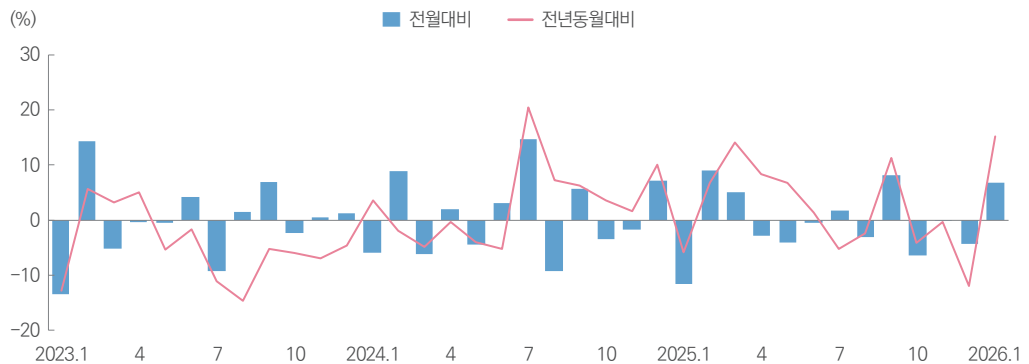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나. 설비투자

■ 1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모두 전월대비 증가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위주로 늘어 전월대비 6.8% 증가
 - 설비투자(전월대비, %): ('25.11월)2.0 → (12월)-4.3 → ('26.1월)6.8
 - 기계류(전월대비, %): ('25.11월)4.5 → (12월)2.2 → ('26.1월)4.0
 - 운송장비(전월대비, %): ('25.11월)-3.8 → (12월)-19.8 → ('26.1월)15.1
- 전년동월대비는 운송장비, 기계류 모두 크게 증가하여 전체 15.3% 증가
 -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 %): ('25.11월)-0.4 → (12월)-12.1 → ('26.1월)15.3
 - 기계류(전년동월대비, %): ('25.11월)-3.1 → (12월)-2.0 → ('26.1월)16.7
 - 운송장비(전년동월대비, %): ('25.11월)6.7 → (12월)-34.6 → ('26.1월)11.2

| 그림 22 | 설비투자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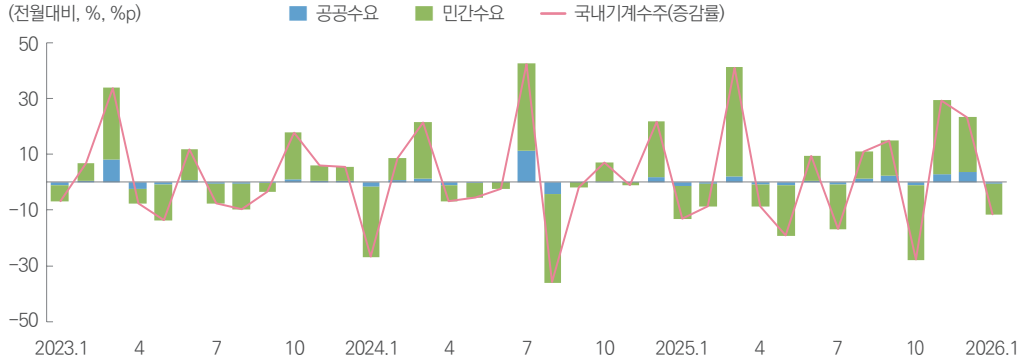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 1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월대비 11.5% 감소

-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25.11월)29.3 → (12월)23.5 → ('26.1월)-11.5
- 공공부문(전월대비, %): ('25.11월)248.2 → (12월)92.5 → ('26.1월)-77.5
- 민간부문(전월대비, %): ('25.11월)21.0 → (12월)15.9 → ('26.1월)0.5

| 그림 23 |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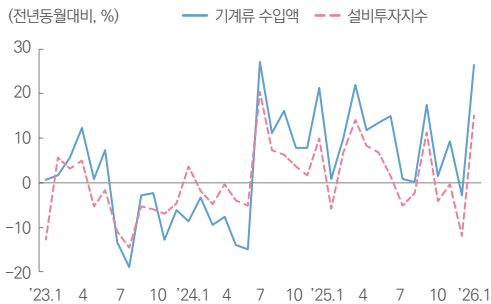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 1월 「기계설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감소, 「기계류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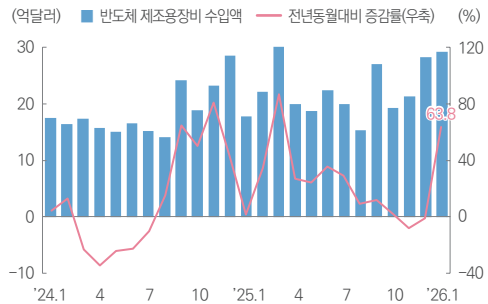
- 기계설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24.3% 감소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25.11월)14.5 → (12월)20.4 → ('26.1월)-24.3
- 기계류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
 - 기계류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5.11월)9.3 → (12월)-2.9 → ('26.1월)26.6
 -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5.11월)-8.2 → (12월)-1.1 → ('26.1월)63.8

| 그림 24 | 기계류 수입액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 그림 25 |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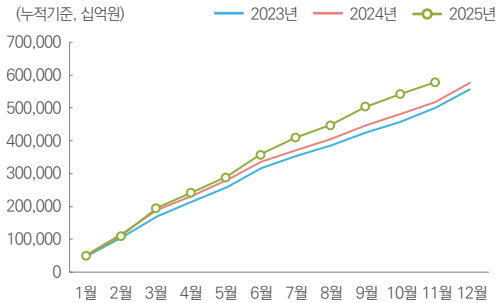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04 중앙정부 재정지출

■ 통합재정 「중앙정부 총지출」^[2]은 2025년 1~11월까지 누계기준 전년대비 59.9조원(11.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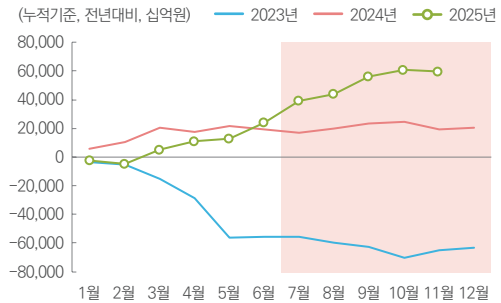
- 2025년 1~11월 중 중앙정부 통합재정 재정지출에서 순융자를 뺀 중앙정부 총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규모는 580.9조원으로 전년대비 59.9조원(11.5%) 증가
 - 경상지출은 546.6조원으로 전년대비 59.9조원(12.3%), 자본지출은 34.2조원으로 전년대비 0.04조원(0.1%) 감소
 - 총지출 증감(누계, 전년대비, 조원): ('25.9월)56.3 → (10월)60.6 → (11월)59.9
 - 통합재정수지(누계, 조원)^[3]: ('25.9월)-63.5 → (10월)-44.0 → (11월)-43.3

| 그림 26 | 중앙정부 총지출 추이



자료: 재정경제부

| 그림 27 | 중앙정부 총지출 증감 추이



자료: 재정경제부

■ 경상지출은 지방정부 경상이전 지출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자본이전을 중심으로 증가

- 1~11월 중 경상지출^[4]은 가계 경상이전(10.7조원), 지방정부 경상이전(34.6조원) 등에서 늘며 전년대비 59.9조원(12.3%) 증가

[2] 정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는 총지출과 통합재정 상 재정지출이다. 총지출은 총계 기준으로 작성하며 일반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과 융자지출을 합한 규모이다. 통합재정 상 재정지출은 총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에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를 더한 재정지출 규모이다. 현재는 IMF의 1986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재정 활동의 경제적 영향 및 재정 건전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979년부터 연간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부터 월별 실적을 공표하고 있다.

[3]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순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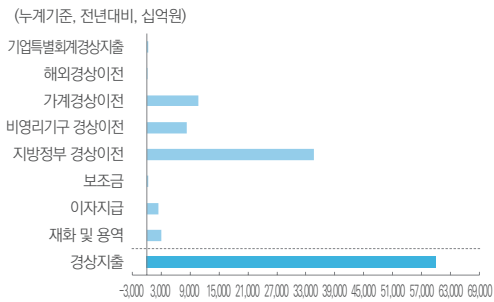
[4] 경상지출은 ①재화 및 용역, ②이자지급, ③보조금 및 경상이전, ④기업특별회계 경상지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재화 및 용역은 급여 및 임금, 사회보장기여금, 기탁재화 및 용역구입 등에 대한 지출이다. 이자지급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외 등의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한 지출이다. 보조금 및 경상이전 지출은 보조금, 지방정부에 대한 경상이전, 비영리기관에 대한 경상이전, 가계에 대한 경상이전, 해외경상이전 등이다. 기업특별회계 경상지출은 비금융공기업의 경상지출이다.

- 경상지출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5.9월)55.8 → (10월)60.3 → (11월)59.9
- 가계 경상이전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5.9월)8.1 → (10월)10.6 → (11월)10.7
- 지방정부 경상이전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5.9월)31.3 → (10월)34.4 → (11월)34.6

• 1~11월 중 자본지출^[5]은 자본이전(1.1조원)에서 늘었으나, 고정자산취득(-1.2조원)에서 줄어 전년대비 0.04조원(0.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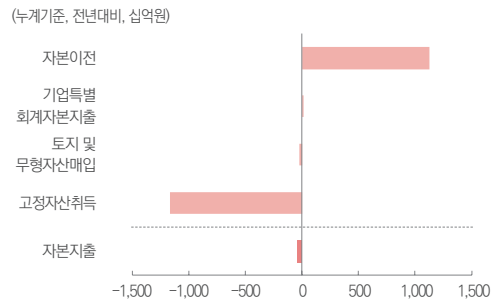
- 자본지출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5.9월)0.6 → (10월)0.3 → (11월)-0.04
- 고정자산취득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조원): ('25.8월)-0.8 → (9월)-1.0 → (11월)-1.2
- 자본이전 증감(누계기준, 전년대비, 십억원): ('25.9월)1.6 → (10월)1.3 → (11월)1.1

| 그림 28 | 경상지출 증감률 추이



자료: 재정경제부

| 그림 29 | 자본지출 증감률 추이



자료: 재정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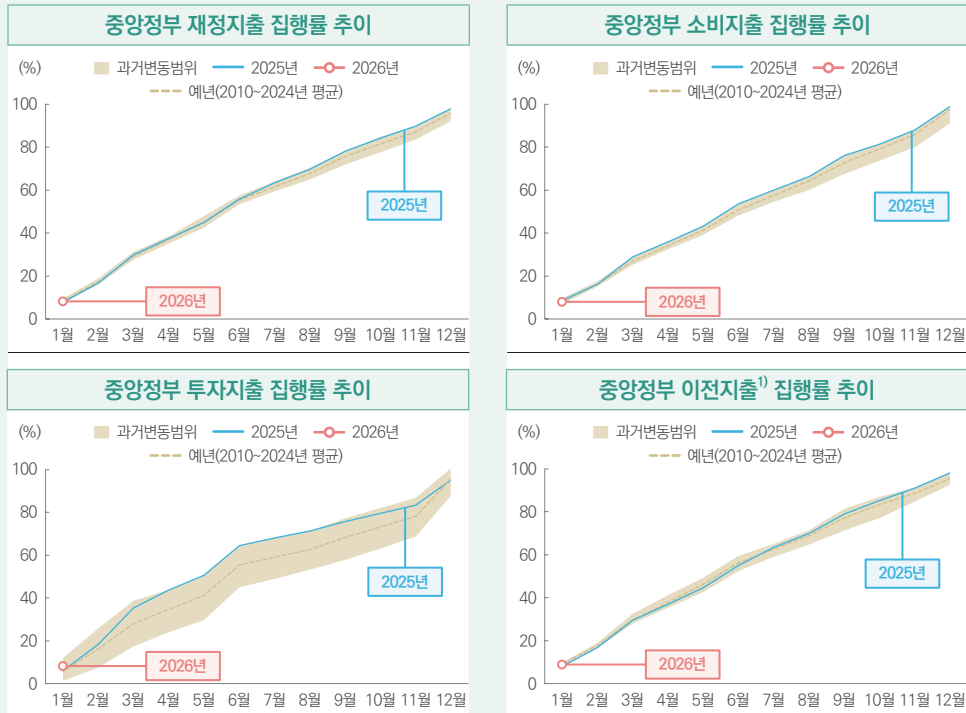
[5] 자본지출은 ①고정자산취득, ②재고자산매입, ③토지 및 무형자산매입, ④자본이전 등으로 나뉜다.

[BOX]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이용한 재정 집행률 추정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수록된 월별 정부지출 원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소득통계 기준 중앙정부 재정지출 집행률을 시범 추정

- 한국재정정보원(FIS)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예산시스템이 중앙정부 각 부처의 지출 세목별 세출집행실적을 월별로 시차 없이 집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 IMF의 '01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GFS)을 원용하여 국민소득통계 상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그 주요 구성 항목인 소비지출, 투자지출, 이전지출 등의 집행률을 월별로 추정
 - dBrain에 수록된 당월까지의 항목별 지출액과 세출예산액(최종예산 기준, 연간)을 '01 재정통계편람(GFS) 체계에 맞추어 각각 재분류한 다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을 산출 (집행률 = 지출액/예산액)
 - 정부도 '01 재정통계편람(GFS)을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 작성에 활용하고 있으며 작성 결과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국통합재정수지」에 수록하여 공표
- * 자세한 내용은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34호(2025.3.) “IV. 경제이슈 분석: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국민소득통계 간 연계 분석”을 참조(p.38~46)
- 이렇게 재분류한 '26년 세출예산액(최종예산 기준, 연간)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이전지출, 소비지출, 투자지출 순
 - 소비지출('26년 예산 중 12.2%): 피용자보수, 재화와 용역의 사용 등
 - 투자지출('26년 예산 중 10.4%): 총고정자본형성
 - 이전지출('26년 예산 중 55.2%, 사회급여 제외): 이차지급, 보조금, 출연금 등
 - 사회급여('26년 예산 중 22.0%, 사회보장기금의 지출): 사회보장급여, 사회부조급여
- * 국민소득통계는 국민연금 등 사회급여를 중앙정부가 아닌 사회보장기금의 이전지출로 분류(국민소득통계 상 일반정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사회보장기금)
-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된 집행률은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을 시차 없이 국민소득통계의 관점(정부소비 및 정부투자)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
 - 현재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는 서로 다른 분류체계와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어 구성항목과 금액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국민소득의 관점(정부소비 및 정부투자)에서 재정동향을 파악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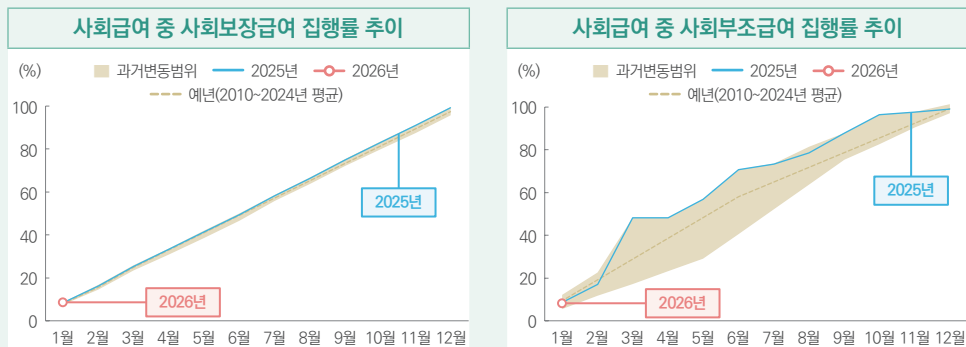
■ 국회예산정책처가 자체 추정한 국민소득 기준 '26.1월 중앙정부 재정지출 집행률은 예년 1월의 평균 집행률(2010~2024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



주: 1) 국민소득통계가 사회급여를 중앙정부가 아니라 사회보장기금의 이전지출로 처리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이전지출 산출시 동 항목을 제외(국민소득통계 상 정부 = 중앙 + 지방 + 사회보장기금).

자료: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사회급여 집행률(사회보장기금의 지출로 분류)도 특이 동향없이 예년 1월과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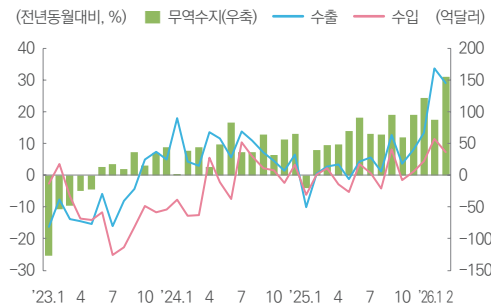
자료: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

■ 2월 「무역수지」는 155.1억달러 흑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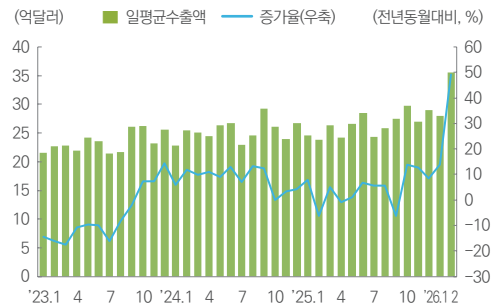
- 수출은 674.5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9.0%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2월)13.3 → ('26.1월)33.8 → (2월)29.0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25.12월)29.0 → ('26.1월)28.0 → (2월)35.5
- 수입은 519.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5% 증가
 - 수입(전년동월대비, %): ('25.12월)4.6 → ('26.1월)11.6 → (2월)7.5
 - 일평균수입액(억달러): ('25.12월)23.9 → ('26.1월)24.3 → (2월)27.3
- 무역수지(통관 수출입차)는 155.1억달러 흑자
 - 무역수지(억달러): ('25.12월)121.5 → ('26.1월)87.2 → (2월)155.1

| 그림 30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

| 그림 31 | 일평균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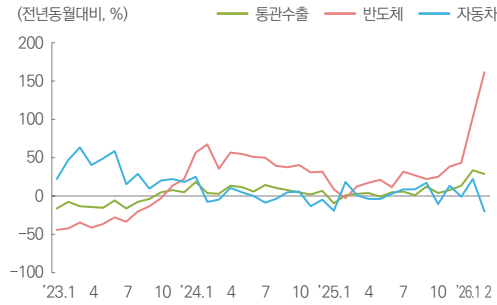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

■ 2월 「수출」은 품목별로는 반도체, 컴퓨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별로는 중국, EU 등을 중심으로 증가

-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제외 수출액 증감률은 감소 전환
 - 반도체(전년동월대비, %): ('25.12월)43.2 → ('26.1월)102.8 → (2월)160.8
 - 컴퓨터(전년동월대비, %): ('25.12월)36.6 → ('26.1월)89.0 → (2월)221.6
 - 반도체 제외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2월)4.0 → ('26.1월)15.9 → (2월)-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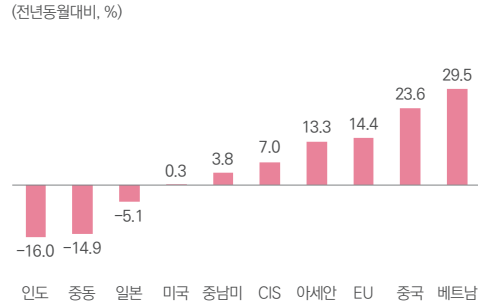
- 중국, EU,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일본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
 - 대중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2월)10.9 → ('26.1월)17.6 → (2월)23.6
 - 대미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2월)23.7 → ('26.1월)15.7 → (2월)0.3
 - 대일본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2월)4.4 → ('26.1월)8.6 → (2월)-5.1
 - 대아세안 수출(전년동월대비, %): ('25.12월)15.2 → ('26.1월)16.8 → (2월)13.3

| 그림 32 |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

| 그림 33 | 2월 중 지역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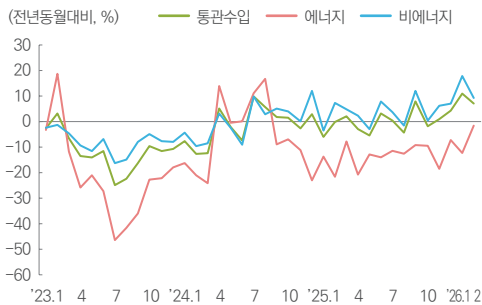


주: CIS는 독립국가연합을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

■ 2월 「수입」은 비에너지 부문 수입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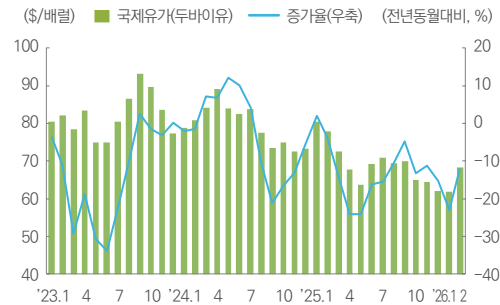
- 에너지 수입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1.4% 감소
- 비에너지 수입은 반도체(19.1%), 반도체 제조용장비(43.4%)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9.6% 증가
 - 에너지(전년동월대비, %): ('25.12월)-7.2 → ('26.1월)-12.2 → (2월)-1.4
 - 비에너지(전년동월대비, %): ('25.12월)7.3 → ('26.1월)18.4 → (2월)9.6
 - 원유수입가격(전년동월대비, %): ('25.12월)-10.8 → ('26.1월)-15.5 → (2월)-17.4

| 그림 34 | 부문별 수입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

| 그림 35 |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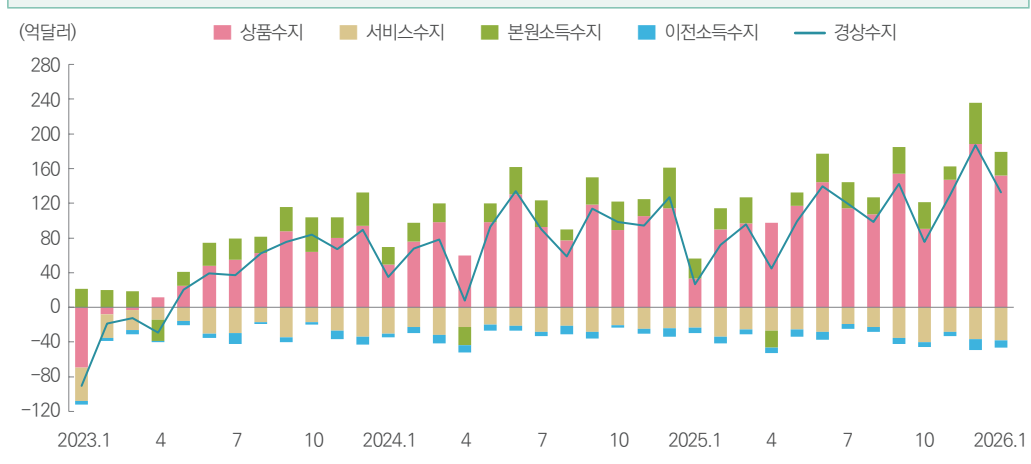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입 동향」, 관세청

나. 경상수지

■ 1월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유지

- 경상수지는 132.6억달러로 흑자 지속
 - 경상수지(억달러): ('25.11월)129.0 → (12월)187.0 → ('26.1월)132.6
- 상품수지는 일반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151.7억달러 흑자
 - 상품수지(억달러): ('25.11월)147.0 → (12월)188.5 → ('26.1월)151.7
 - 일반상품수지(억달러): ('25.11월)142.9 → (12월)173.8 → ('26.1월)141.8
 - 중계무역순수출(억달러): ('25.11월)14.8 → (12월)20.2 → ('26.1월)15.3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등의 적자가 확대되어 38억달러 적자
 - 서비스수지(억달러): ('25.11월)-28.5 → (12월)-36.9 → ('26.1월)-38.0
 - 여행수지(억달러): ('25.11월)-9.8 → (12월)-14.1 → ('26.1월)-17.4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억달러): ('25.11월)-5.1 → (12월)-2.2 → ('26.1월)-6.9
 - 기타사업서비스(억달러): ('25.11월)-14.1 → (12월)-18.5 → ('26.1월)-11.9
- 본원소득수지는 투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27.2억달러 흑자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25.11월)15.3 → (12월)47.3 → ('26.1월)27.2
 - 투자소득수지(억달러): ('25.11월)16.6 → (12월)49.1 → ('26.1월)28.6

| 그림 36 | 항목별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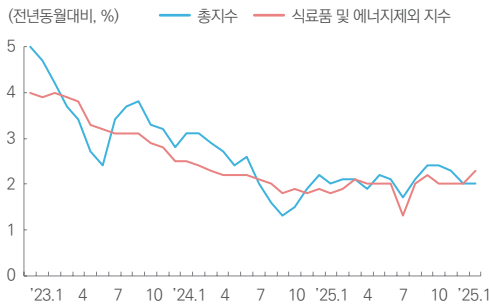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06 소비자물가

■ 2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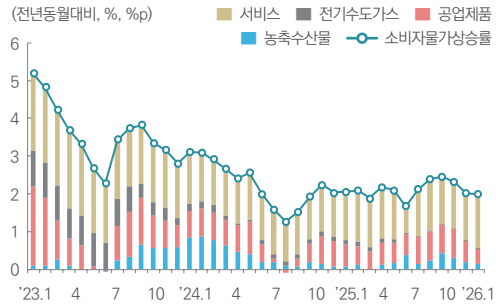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는 상품(1.2%), 서비스(2.6%)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2.3 → ('26.1월)2.0 → (2월)2.0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2.4 → ('26.1월)1.7 → (2월)1.2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2.3 → ('26.1월)2.2 → (2월)2.6
 - 근원물가상승률^[6](전년동월대비, %): ('25.12월)2.0 → ('26.1월)2.0 → (2월)2.3

| 그림 37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

| 그림 38 |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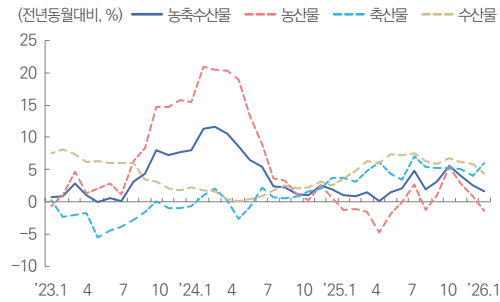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는 축산물(6.0%) 및 수산물(4.4%) 품목을 중심으로 1.7% 상승
 - 농축수산물(전년동월대비, %): ('25.12월)4.1 → ('26.1월)2.6 → (2월)1.7
 - 농산물(전년동월대비, %): ('25.12월)2.9 → ('26.1월)0.9 → (2월)-1.4
 - 축산물(전년동월대비, %): ('25.12월)5.1 → ('26.1월)4.1 → (2월)6.0
 - 수산물(전년동월대비, %): ('25.12월)6.2 → ('26.1월)5.9 → (2월)4.4
- 공업제품 물가는 가공식품(2.1%) 가격을 중심으로 1.2% 상승
 - 공업제품(전년동월대비, %): ('25.12월)2.2 → ('26.1월)1.7 → (2월)1.2
 - 가공식품(전년동월대비, %): ('25.12월)2.5 → ('26.1월)2.8 → (2월)2.1
 -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5.12월)6.1 → ('26.1월)0.0 → (2월)-2.4
 - 국제유가(3개유종평균, 달러/배럴): ('25.12월)60.9 → ('26.1월)63.7 → (2월)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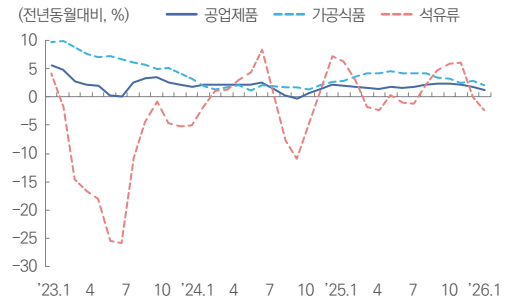
[6]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 그림 39 | 농축수산물 물가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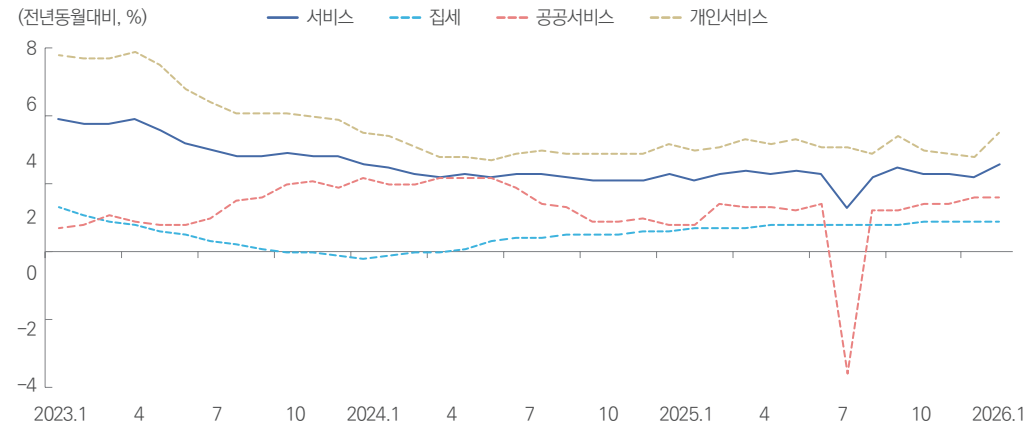
| 그림 40 | 공업제품 물가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

- 서비스 물가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2.6% 상승
 - 서비스 물가(전년동월대비, %): ('25.12월)2.3 → ('26.1월)2.2 → (2월)2.6
 - 집세(전년동월대비, %): ('25.12월)0.9 → ('26.1월)0.9 → (2월)0.9
 - 공공서비스(전년동월대비, %): ('25.12월)1.4 → ('26.1월)1.6 → (2월)1.6
 - 개인서비스(전년동월대비, %): ('25.12월)2.9 → ('26.1월)2.8 → (2월)3.5

| 그림 41 |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

II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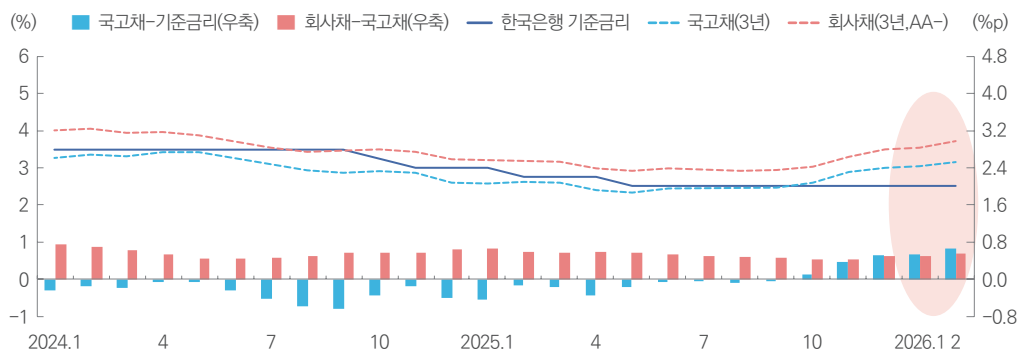
CHAPTER

01 금리 및 주가

■ 「국고채금리」는 2월 중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기준금리는 2.50%로 10개월 연속 동결

- 국고채 금리는 전월대비 0.13%p 상승하여 전월(0.03%p)보다 상승폭이 확대
 - 국고채금리(3년물, 월평균, %): ('25.12월)3.01 → ('26.1월)3.04 → (2월)3.17
 - 금리차(국고채 3년물-기준금리, bp): ('25.12월)51 → ('26.1월)54 → (2월)67
- 회사채와 국고채 간 위험 스프레드는 회사채 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확대
 - 회사채금리(3년물 AA-, 월평균, %): ('25.12월)3.50 → ('26.1월)3.55 → (2월)3.72
 - 위험 스프레드(회사채3년물-국고채3년물, bp): ('25.12월)49 → ('26.1월)50 → (2월)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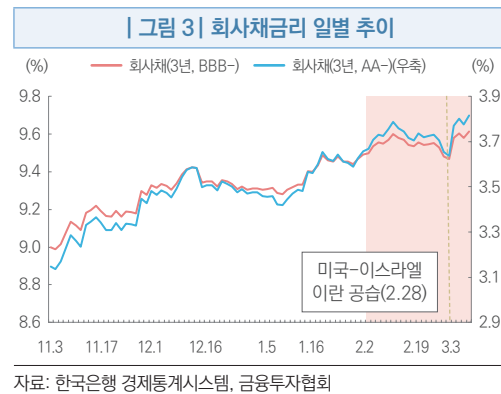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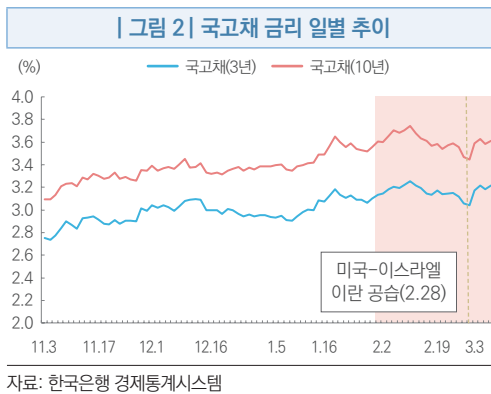
| 그림 1 | 기준금리 및 채권금리 월별 추이



주: 채권금리는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채권금리의 일별 흐름을 보면 2월 중순 이후 하락 흐름이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3월 들어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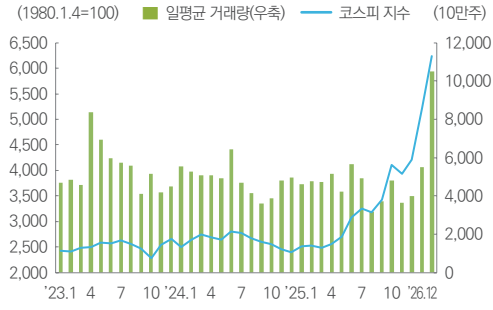
- 국고채 3년물은 2월 중순(2.9일 3.28%)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2.27일 3.04%)
 - 국고채 10년물은 3년물 비슷한 흐름을 보여 2.9일 3.75%까지 상승하였고, 이후 하락하여 2.27일 3.44%를 기록하였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3.6일 현재 3.62%로 급등
- 회사채 3년물(AA-)은 2월 중순(2.9일 3.79%)까지 상승하였고, 이후 하락하여 2.27일 3.64%를 기록하였으나, 중동사태 이후 급등(3.6일 3.82%)
 - 비우량 회사채 3년물 금리(BBB-, 투자적격등급 하단)는 2월 중순(2.9일 9.60%) 이후 하락하여 2.27일 9.47%였으나 3월 들어 급등(3.6일 9.61%)하였고, 신용 스프레드(BBB-와 AA- 금리 간 차이)는 5.82%p 수준에서 횡보



■ **2월 중 「코스피 지수」는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들어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
 - 코스피 지수는 1월 중 전월말 대비 24.0% 상승하였고, 2월에도 반도체 대형주 등을 중심으로 19.5% 상승
 - 코스피지수(월말, 1980.1.4.=100): ('25.12월)4,214.2 → ('26.1월)5,224.4 → (2월)6,244.1
-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1월 5억 5,001만주에서 2월 10억 4,845만주로 90.6% 증가
 -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10만주): ('25.12월)4,004.6 → ('26.1월)5,500.1 → (2월)10,484.5

| 그림 4 | 코스피 지수 및 거래량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 그림 5 | 일별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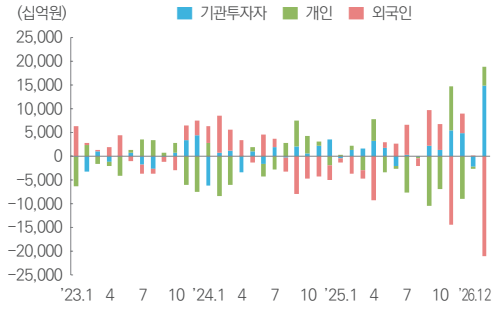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 코스피 시장의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기관과 개인은 순매수, 외국인투자자는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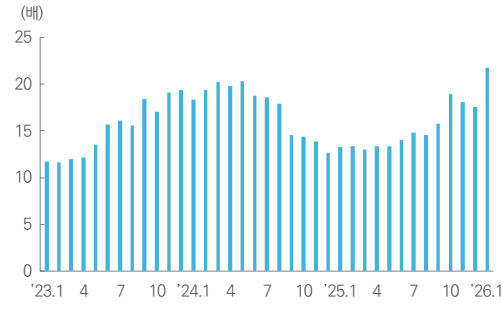
- 2월 개인은 순매수를 지속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로 전환
 - 2월 투자자별 순매수(십억원): 기관투자자 14,859, 개인 4,035, 외국인 -21,073
 - 주가이익비율(PER, 배): ('25.11월)18.12 → (12월)17.56 → ('26.1월)21.84

| 그림 6 | 투자주체별 순매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 그림 7 | 코스피 주가이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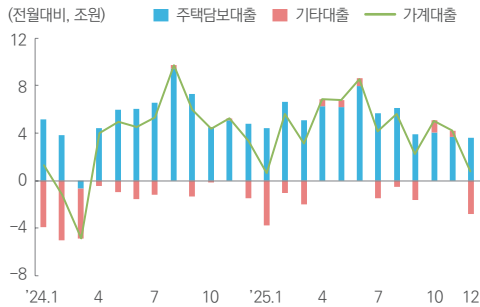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02 가계대출 및 부동산

■ 12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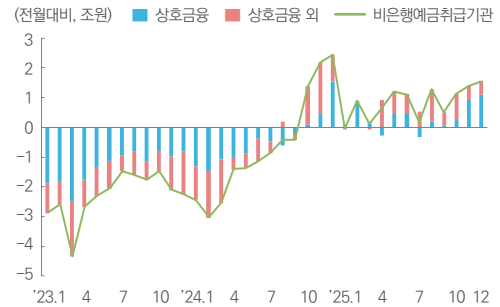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잔액은 전월대비 0.8조원 늘어난 1,326.7조원
 - 용도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대비 3.6조원 늘어난 905.0조원을 기록하였으며, 기타대출은 전월대비 2.8조원 감소한 421.7조원을 기록
 - 가계대출(조원): ('25.10월)1,321.7 → (11월)1,325.9 → (12월)1,326.7
 - 주택담보대출(조원): ('25.10월)897.7 → (11월)901.4 → (12월)905.0
 - 기타대출(조원): ('25.10월)423.9 → (11월)424.5 → (12월)421.7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잔액은 전월대비 1.5조원 늘어난 316.8조원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전월대비, 조원): ('25.10월)313.9 → (11월)315.3 → (12월)316.8
 - 상호금융 가계대출(조원): ('25.10월)40.1 → (11월)40.1 → (12월)39.6
 -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조원): ('25.10월)64.3 → (11월)64.9 → (12월)65.6

| 그림 8 |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9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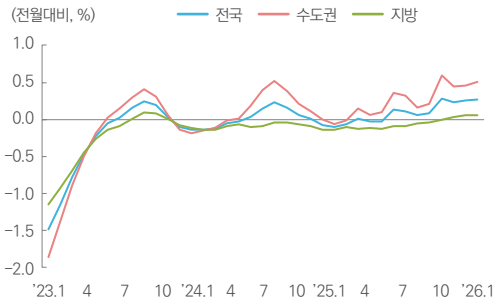
■ 12월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하락

- 국내은행의 전국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0.06%p 하락한 0.38% 기록
 - 가계대출 연체율(전국, %): ('25.10월)0.42 → (11월)0.44 → (12월)0.38
 - 가계대출 연체율(서울, %): ('25.10월)0.49 → (11월)0.52 → (12월)0.44

■ 1월 「주택매매가격」, 「전월세통합지수」 전월대비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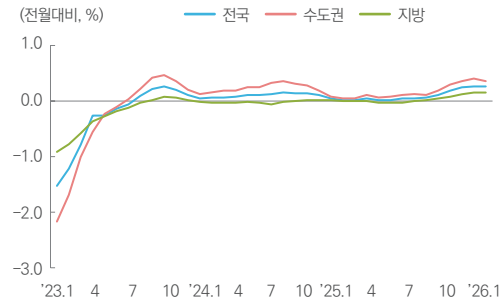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통합지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각각 0.28%, 0.27% 상승
 - 주택매매가격지수(전월대비, %): ('25.11월)0.24 → (12월)0.26 → ('26.1월)0.28
 - 전월세통합지수(전월대비, %): ('25.11월)0.25 → (12월)0.28 → ('26.1월)0.27

| 그림 10 | 권역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



주: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그림 11 | 권역별 주택 전월세통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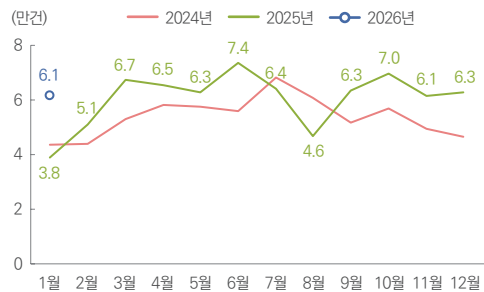


주: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1월 「주택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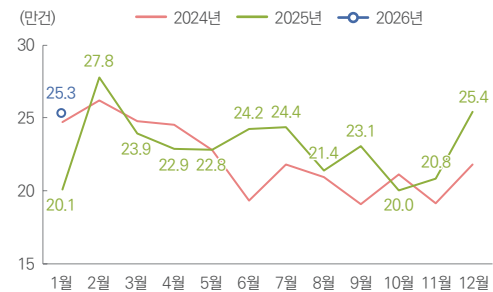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매매거래량은 61,450건으로 전월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전월세거래량은 253,410건으로 전월대비 0.3% 감소
 - 주택매매거래량(건): ('25.11월)61,407 → (12월)62,893 → ('26.1월)61,450
 - 전월세거래량(건): ('25.11월)208,002 → (12월)254,149 → ('26.1월)253,410

| 그림 12 |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 그림 13 |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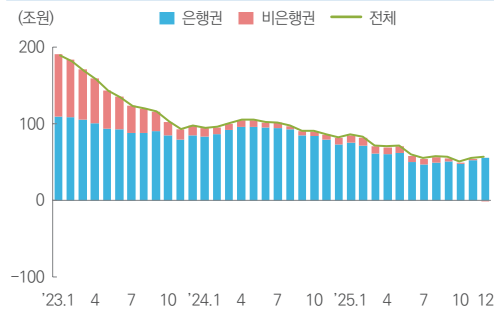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가. 기업대출

■ 12월 「기업대출」은 은행권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5.1조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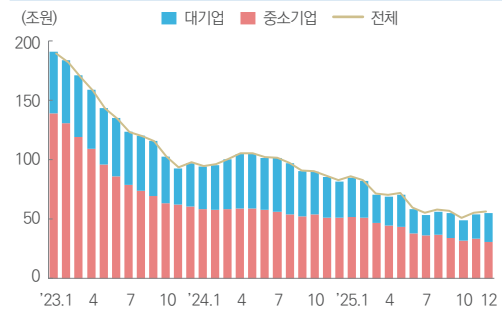
- 기업대출은 전년대비 55.1조원 증가한 1,902.6조원
 - 기업대출증감액(전년대비, 조원): ('25.10월)49.2 → (11월)53.8 → (12월)55.1
 - 기업대출잔액(조원): ('25.10월)1,901.2 → (11월)1,910.8 → (12월)1,902.6
- 업권별로는 은행권(56.0조원)을 중심으로 증가
 - 은행권 대출증감액(전년대비, 조원): ('25.10월)47.9 → (11월)52.4 → (12월)56.0
 - 비은행권 대출증감액(전년대비, 조원): ('25.10월)1.3 → (11월)1.4 → (12월)-0.9
 - 은행권 대출잔액(조원): ('25.10월)1,441.1 → (11월)1,448.3 → (12월)1,442.3
 - 비은행권 대출잔액(조원): ('25.10월)460.1 → (11월)462.5 → (12월)460.3
-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전년대비 24.4조원, 중소기업에서는 30.7조원 증가
 - 대기업 대출증감액(전년대비, 조원): ('25.10월)16.9 → (11월)20.3 → (12월)24.4
 - 중소기업 대출증감액(전년대비, 조원): ('25.10월)32.3 → (11월)33.5 → (12월)30.7
 - 대기업 대출잔액(조원): ('25.10월)358.6 → (11월)362.1 → (12월)360.0
 - 중소기업 대출잔액(조원): ('25.10월)1,542.6 → (11월)1,548.7 → (12월)1,542.6

| 그림 14 | 금융기관 기업대출 증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15 | 규모별 기업대출 전월대비증감액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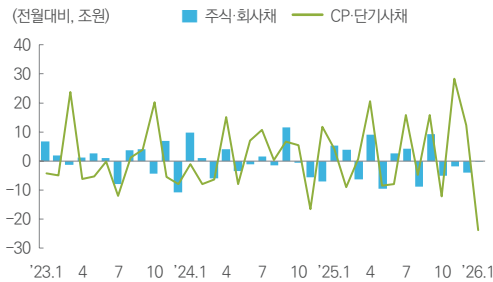
- 12월 기업대출 은행대출금 연체율은 0.59%로 전월대비 0.14%p 하락
 - 기업대출 은행대출금 연체율(%): ('25.10월)0.69 → (11월)0.73 → (12월)0.59

나. 주식 및 채권 발행

■ 1월 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은 회사채 발행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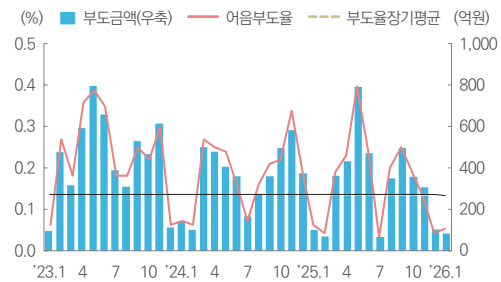
- 주식·회사채 총 발행액은 17조 7,440원으로 전월에 비해 2,264억원(1.3%)감소
 - 주식·회사채(조원): ('25.11월)21.9 → (12월)18.0 → ('26.1월)17.7
 - 주식(조원): ('25.11월)0.8 → (12월)2.5 → ('26.1월)0.1
 - 회사채(조원): ('25.11월)21.1 → (12월)15.5 → ('26.1월)17.6
- CP·단기사채 총 발행액은 154조 7,302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24조 330억원(13.4%)감소
 - CP·단기사채(조원): ('25.11월)166.3 → (12월)178.8 → ('26.1월)154.7
 - CP(조원): ('25.11월)44.8 → (12월)43.3 → ('26.1월)46.9
 - 단기사채(조원): ('25.11월)121.5 → (12월)135.4 → ('26.1월)107.8
- 어음 부도액은 851억원으로 전월대비 감소, 부도율은 0.05%로 전월대비 증가
 - 어음 부도액(억원): ('25.11월)3,069 → (12월)1,048 → ('26.1월)851
 - 어음 부도율(%): ('25.11월)0.13 → (12월)0.04 → ('26.1월)0.05

| 그림 16 | 직접금융 조달실적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 그림 17 | 부도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2월 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 말 대비 2.5원 하락한 1,424.5원을 기록

- 2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나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큰 폭 상승
 - 원/달러 환율(월말기준, 원): ('25.12월)1,434.9 → ('26.1월)1,427.0 → (2월)1,424.5
 ※ 최근 원/달러 환율: (3월3일)1,435.4 → (3월10일)1,493.1 → (3월11일)1,472.8
 - 원/달러 환율 변화율^[7](전월말 대비, %): ('25.12월)2.1 → ('26.1월)0.6 → (2월)0.2
 - 미 달러화 지수(월말기준, 1973=100): ('25.12월)99.7 → ('26.1월)99.0 → (2월)98.3
- 2월 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전월대비 확대
 - 원/달러 환율 변동성^[8](%): ('25.12월)9.3 → ('26.1월)10.4 → (2월)12.4

다들 좋아하니까 (100g 기준)

연월	가격 (원)
14.12	1,468
14.12.1	1,468
14.12.2	1,468
14.12.3	1,468
14.12.4	1,468
14.12.5	1,468
14.12.6	1,468
14.12.7	1,468
14.12.8	1,468
14.12.9	1,468
14.12.10	1,468
14.12.11	1,468
14.12.12	1,468
14.12.13	1,468
14.12.14	1,468
14.12.15	1,468
14.12.16	1,468
14.12.17	1,468
14.12.18	1,468
14.12.19	1,468
14.12.20	1,468
14.12.21	1,468
14.12.22	1,468
14.12.23	1,468
14.12.24	1,468
14.12.25	1,468
14.12.26	1,468
14.12.27	1,468
14.12.28	1,468
14.12.29	1,468
14.12.30	1,468
15.01	1,467
15.01.1	1,467
15.01.2	1,467
15.01.3	1,467
15.01.4	1,467
15.01.5	1,467
15.01.6	1,467
15.01.7	1,467
15.01.8	1,467
15.01.9	1,467
15.01.10	1,467
15.01.11	1,467
15.01.12	1,467
15.01.13	1,467
15.01.14	1,467
15.01.15	1,467
15.01.16	1,467
15.01.17	1,467
15.01.18	1,467
15.01.19	1,467
15.01.20	1,467
15.01.21	1,467
15.01.22	1,467
15.01.23	1,467
15.01.24	1,467
15.01.25	1,467
15.01.26	1,467
15.01.27	1,467
15.01.28	1,467
15.01.29	1,467
15.01.30	1,467
15.02	1,457
15.02.1	1,457
15.02.2	1,457
15.02.3	1,457
15.02.4	1,457
15.02.5	1,457
15.02.6	1,457
15.02.7	1,457
15.02.8	1,457
15.02.9	1,457
15.02.10	1,457
15.02.11	1,457
15.02.12	1,457
15.02.13	1,457
15.02.14	1,457
15.02.15	1,457
15.02.16	1,457
15.02.17	1,457
15.02.18	1,457
15.02.19	1,457
15.02.20	1,457
15.02.21	1,457
15.02.22	1,457
15.02.23	1,457
15.02.24	1,457
15.02.25	1,457
15.02.26	1,457
15.02.27	1,457
15.02.28	1,457
15.02.29	1,457
15.03	1,449
15.03.1	1,449
15.03.2	1,449
15.03.3	1,449
15.03.4	1,449
15.03.5	1,449
15.03.6	1,449
15.03.7	1,449
15.03.8	1,449
15.03.9	1,449
15.03.10	1,449
15.03.11	1,449
15.03.12	1,449
15.03.13	1,449
15.03.14	1,449
15.03.15	1,449
15.03.16	1,449
15.03.17	1,449
15.03.18	1,449
15.03.19	1,449
15.03.20	1,449
15.03.21	1,449
15.03.22	1,449
15.03.23	1,449
15.03.24	1,449
15.03.25	1,449
15.03.26	1,449
15.03.27	1,449
15.03.28	1,449
15.03.29	1,449
15.03.30	1,449
15.03.31	1,449

The graph shows the index of the average price of new houses in the United States from 1973 to 2017, indexed to 1973=100. The index starts at 100 in 1973, rises to a peak of approximately 100.2 in 1980, then fluctuates with a general downward trend. It reaches a low of about 97.8 in 2009 and ends at approximately 98.2 in 2017.

Year	Index (1973=100)
1973	100.0
1975	99.2
1977	99.8
1979	100.2
1981	99.8
1983	99.5
1985	99.8
1987	100.2
1989	100.2
1991	99.8
1993	99.5
1995	99.2
1997	99.0
1999	98.8
2001	98.5
2003	98.2
2005	98.5
2007	98.0
2009	97.8
2011	98.0
2013	98.2
2015	98.0
2017	98.2

지역	'26.1월 중 (%)	'26.2월 중 (%)
전국	0.5	-1.2
서울	2.5	-2.4
경기	2.2	-1.9
인천	1.8	-1.4
광주	-0.5	-1.3
대전	5.5	-1.3
울산	4.5	-1.2
대구	-0.5	-1.1
경북	0.0	0.1
경남	4.2	0.9
부산	-2.5	1.0
제주	5.5	2.0

이유	'26.1월 중 (%)	'26.2월 중 (%)
없음	2.19	1.33
불편함	6.70	7.50
필요 없음	8.07	11.44
비용 부담	1.13	1.41
개인 정보 보호	3.79	4.50
시간 절약	5.16	5.16
건강	14.00	9.04
환경	6.00	11.41
안전	10.00	12.41
편의성	6.00	16.18
기타	6.00	16.18

자료: 한국은행, Haver,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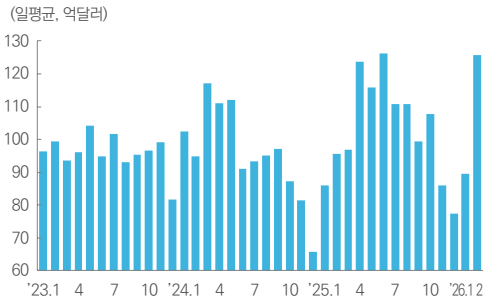
[8] 전일대비 변화율의 기간 중 표준편차를 연율로 환산

나. 외환거래

■ 일평균 「원/달러 현물환 거래액」은 2월 125.7억달러로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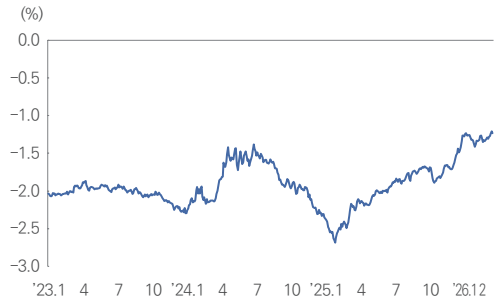
- 스왑레이트는 1.7bp 상승하여 외화자금조달 비용은 감소
 - 원/달러 현물환 거래액(일평균, 억달러): ('25.12월)77.5 → ('26.1월)89.5 → (2월)125.7
 - 스왑레이트^[9](3개월물 일평균, %): ('25.12월)-1.63 → (11월)-1.31 → (12월)-1.29

| 그림 22 | 원/달러 현물환 거래 추이



자료: 인포맥스

| 그림 23 | 스왑레이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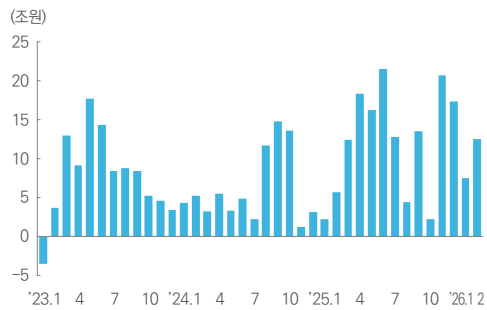


주: 선물환율은 3개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인포맥스

■ 2월 중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자금」^[10]은 8.5조원 순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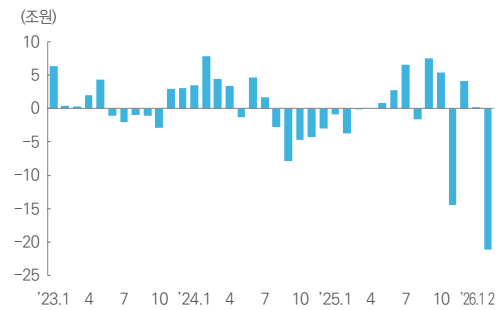
- 외국인 투자자는 채권을 12.5조원 순매수하였으나, 주식을 21.1조원 순매도
 - 채권 순매수(전체, 조원): ('25.12월)17.3 → ('26.1월)7.5 → (2월)12.5
 - 주식 순매수(전체, 조원): ('25.12월)4.1 → ('26.1월)0.1 → (2월)-21.1

| 그림 24 | 외국인 투자자 채권 순매수 대금 추이



자료: 인포맥스

| 그림 25 | 외국인 투자자 주식 순매수 대금 추이



자료: 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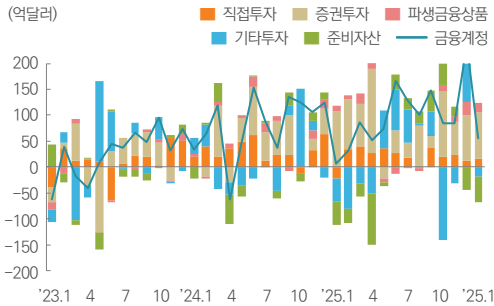
[9] 스왑레이트(swap rate)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선물환율-현물환율)/현물환율)를 연율(%)로 표시한 것으로 외화자금(달러자금)의 조달 비용(환헤지 비용)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스왑레이트의 상승은 환헤지 비용의 감소를 의미(하락은 비용의 증가를 의미).

[10]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 순매수액은 거래일 기준으로 상장/비상장 채권을 모두 포함하고, 금투형 신고 장외채권 대상으로 하고 증권 투자 순매수액은 거래일 기준, 금감원은 장내거래 기준으로 집계

■ 「국제수지 금융계정」은 1월 중 순자산이 56.3억달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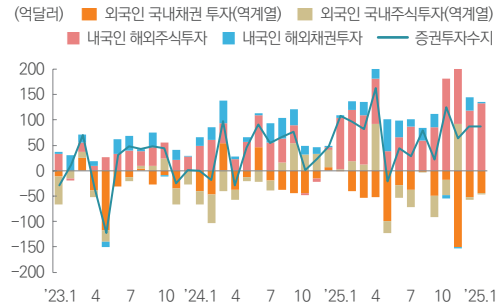
- 증권투자 등을 통해 외화자금 순유입
 - 직접투자 수지(억달러): ('25.11월)23.1 → (12월)13.2 → ('26.1월)17.0
 - 증권투자 수지(억달러): ('25.11월)64.4 → (12월)86.9 → ('26.1월)87.8
 - 기타투자 수지(억달러): ('25.11월)-30.9 → (12월)156.6 → ('26.1월)-18.2

| 그림 26 | 금융계정 순자산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27 | 증권투자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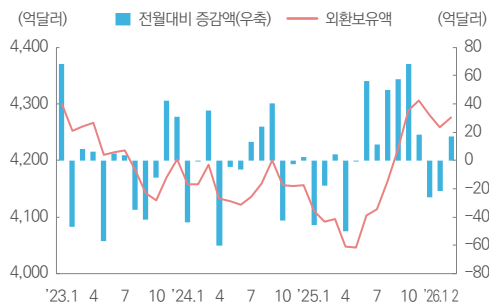
주: 내국인 해외투자는 자산(+)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부채(-)
자료: 한국은행

다. 국제신인도 및 대외 차입여건

■ 「외환보유액」은 2월 말 현재 4,276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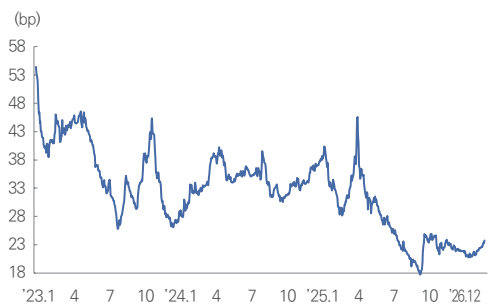
- 외환보유액은 전월대비 17억달러 증가
 - 외환보유액(기말기준, 억달러): ('25.12월)4,281 → ('26.1월)4,259 → (2월)4,276
- CDS 프리미엄(국가 신용위험)은 23.6로 전월말대비 2.0bp 상승
 - CDS 프리미엄(5년물 기말기준, bp): ('25.12월)21.8 → ('26.1월)21.6 → (2월)23.6

| 그림 28 |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29 |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Bloomberg

III

해외경제 동향

■ 미국경제는 생산과 소비지표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시장 둔화 우려 점증

- 산업생산(전월대비, %): ('25.11월)0.1 → (12월)0.2 → ('26.1월)0.7
- 실질개인소비(전월대비, %): ('25.10월)0.3 → (11월)0.2 → (12월)0.1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5.12월)-1.7 → ('26.1월)12.6 → (2월)-9.2

■ 중국경제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5.10월)4.9 → (11월)4.8 → (12월)5.2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5.10월)2.9 → (11월)1.3 → (12월)0.9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5.10월)-1.7 → (11월)-2.6 → (12월)-3.8
- 제조업 PMI: ('25.12월)50.1 → ('26.1월)49.3 → (2월)49.0

■ 유로지역은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경기회복세는 둔화

- 산업생산(전월대비, %): ('25.10월)0.8 → (11월)0.3 → (12월)-1.4
- 소매판매(전월대비, %): ('25.11월)0.1 → (12월)0.1 → ('26.1월)-0.1
- 종합PMI: ('25.12월)51.5 → ('26.1월)51.3 → ('26.2월)51.9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5.12월)2.0 → ('26.1월)1.7 → ('26.2월)1.9

■ 일본경제는 생산과 소비 모두 개선세를 보이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광공업생산(전월대비, %): ('25.11월)-2.7 → (12월)-0.1 → ('26.1월)2.2
- 소매판매(전월대비, %): ('25.11월)0.7 → (12월)-2.0 → ('26.1월)4.1
- 종합PMI: ('25.12월)51.1 → ('26.1월)53.1 → (2월)53.9

주요국 경제 지표

(전기대비, %)

		2024			2025					2026	
		연간	3Q	4Q	연간	1Q	2Q	3Q	4Q	1월	2월
생산	미국	-0.3	-0.1	-0.2	1.1	1.0	0.5	0.5	-0.3	0.7	-
	유로	-0.2	-0.3	0.0	0.1	1.2	-0.7	0.0	-0.1	-	-
	일본	-2.6	0.3	0.4	0.3	-0.3	0.4	0.0	0.8	2.2	-
소비	미국	3.2	1.3	1.8	2.7	0.6	2.5	3.5	2.4	-	-
	유로	0.2	0.9	0.0	0.2	0.2	0.2	0.0	0.2	-0.1	-
	일본	2.5	0.8	0.2	0.2	1.5	-0.1	-1.8	1.1	4.1	-
물가	미국	2.9	2.6	2.7	2.6	2.7	2.4	2.9	2.7	2.4	2.4
	유로	2.4	2.2	2.2	2.1	2.3	2.0	2.1	2.1	1.7	1.9
	일본	2.7	2.8	2.9	3.2	3.8	3.4	2.9	2.7	2.1	1.5
국채 금리	미국	4.2	3.8	4.6	4.2	4.2	4.2	4.2	4.2	4.2	3.9
	유로	2.4	2.1	2.3	2.6	2.5	2.5	2.7	2.7	2.8	2.6
	일본	0.9	0.9	1.1	1.6	1.5	1.5	1.7	2.1	2.3	2.1

주: 1.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주요국 국채금리는 10년물 기준이며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CEIC

경제이슈 분석

IV

대미 투자 확대가 국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경제이슈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V

대미 투자 확대가 국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황소정 분석관

CHAPTER

01 검토배경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자국 중심 산업 정책 강화 등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2022년 반도체과학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을 통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첨단 제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적극 유치한 바 있음
- 또한 2025년 11월에는 한미 간 대미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26년 3월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해당 양해각서에는 수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과 함께,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2,000억 달러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로 구성
 -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산업 관련 민간투자, 보증 및 선박 금융 지원 등 협력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

■ 이러한 가운데 대미투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한편에서는 해외 생산 확대가 국내 제조업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대체효과(crowding-out)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다른 한 편에서는 해외 현지 생산 기지 구축이 국내 본사의 연구개발과 중간재 생산을 확대 시키면서 국내 투자와 수출을 견인하는 보완효과(crowding-in)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 다만 이러한 논의는 아직까지 데이터와 실증분석에 기반한 명확한 결론이 제시되기보다는 일부 우려나 인식 차원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

- 한편, 우리 경제에서 설비투자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지난 15년간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반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직접투자의 규모와 경제 내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
- 이에 본고에서는 대미 직접투자가 그간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향후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현시점에서, 해외투자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지 또는 보완하는지 다음의 과정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함
 - 첫째,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전반적 추이와 대미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미국의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동향을 점검
 - 둘째, 우리나라 설비투자 현황을 검토하고,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적 요인으로서 기업의 경영 여건을 함께 점검
 - 셋째, 대미 직접투자와 설비투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업 및 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 영향 관계를 분석

02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및 대미 직접투자 현황

가. 해외직접투자 현황

■ 국내 기업들의 투자 지평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서 해외직접투자^[1]가 차지하는 비중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글로벌 생산 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는 추세^[2]
-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2010년 약 12.1%의 수준에서 2025년 44.3%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
-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수익의 GDP 대비 비중은 202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최근에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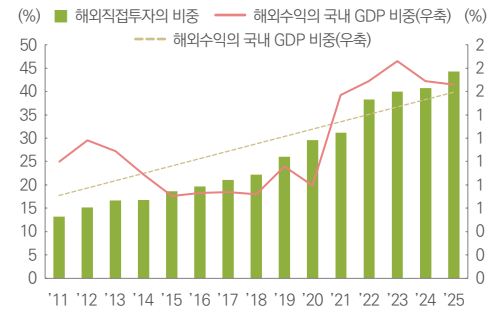
■ 해외직접투자 규모면에서도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으며, 수익률은 하향 안정화 추세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우상향하며, 기업의 글로벌 자산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 초창기 9%에 달하던 수익률은 투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최근에는 4~5%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되었음
 - 2020년 팬데믹 당시 3%까지 하락했던 수익률이 2021년 5.9%로 다시금 급등, 이후 2025년 4.1%까지 하향 추세

[1]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해 해외 현지의 생산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형태의 기업활동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해 자회사나 지점 형태를 갖추거나 사업용 실물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투자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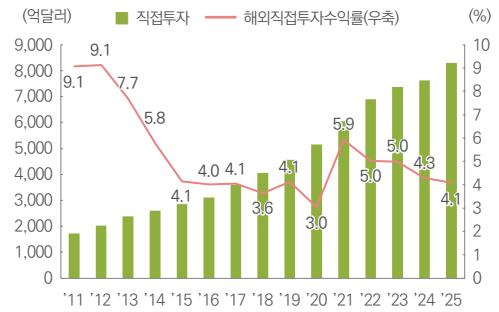
[2] 기업의 관점에서 해외직접투자는 시장확보, 생산효율, 원료확보, 정책안정, 선도기업 추종, 고객확보 및 유지 등 일곱 가지 전략적 동기 중 몇 가지가 결합되어 이루어짐(David et al, 1986)

| 그림 1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수익의 GDP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 '국제수지'

| 그림 2 | 해외직접투자 수익률



주: 해외직접투자수익률은 직접투자소득수입/직접투자(잔액) 으로 계산
자료: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 '국제수지'

■ 해외 직접투자의 수익률은 국내 제조업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을 상회하면서,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는 동인이 되고 있음

- 단,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 2015~2018년은 예외적으로 해외투자 수익률이 제조업 이익률보다 낮은 구간도 존재
- 2020년 팬데믹 이후 해외직접투자 수익률이 다시 반등하며 국내 제조업 ROA와 격차가 재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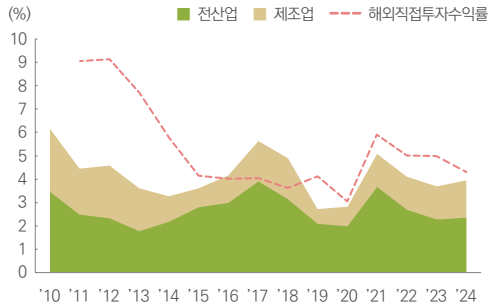
■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수입의 구성을 보면, 재투자 수익^[3]의 비중이 높았으나 2023년 이후 배당수입이 확대

- 2020년까지는 직접투자 소득수입이 완만한 흐름을 이어가다 2021년을 기점으로 큰 폭 상승하여 최근에는 연간 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
- 과거에는 이익을 다시 현지에 재투자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3년 이후 배당수입이 증가^[4]하면서 비중이 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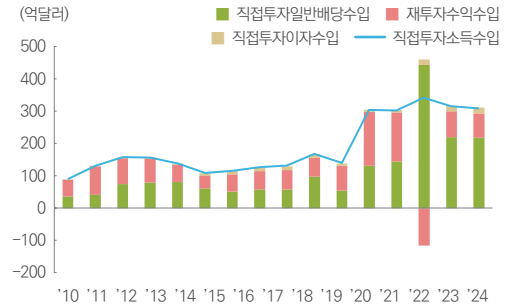
[3] 재투자 수익은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되지 않고 현지 법인에 유보되어 다시 자본화되는 부분을 의미

[4] 2023년 1월 1일부터 이금불산입 제도가 시행되며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의 95%를 비과세(기존에는 현지 납부세액 공제후 과세)하고, 면세대상 자회사의 기준을 기존의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였음. 2023년 상반기 세법 개정 이후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해외 유보금의 일시적 국내 환류(자본 리쇼어링)로 인해 본원소득수지 내 배당 수입이 역대급 폭자를 기록한 상황임

| 그림 3 | 기업 ROA와 해외직접투자 수익률 추이



| 그림 4 | 내역별 해외직접투자수입 추이



나. 대미 직접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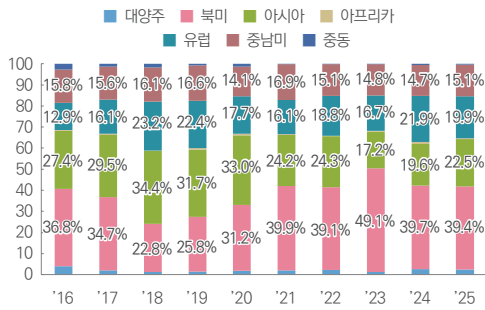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북미, 아시아, 유럽, 중남미 지역이 주요 투자 대상 지역이며, 그 중에서도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아시아 비중은 낮아지는 흐름

- 2020년까지는 아시아 비중이 대체로 높았으나, 2021년 북미 지역이 39.9%로 비중이 상승하며, 2025년에도 39.4%로 가장 큰 투자 대상 지역이 되었음
- 국가별로는 2025년 기준 미국의 비중이 29.0%, 중국 20.4%, 베트남 7.8%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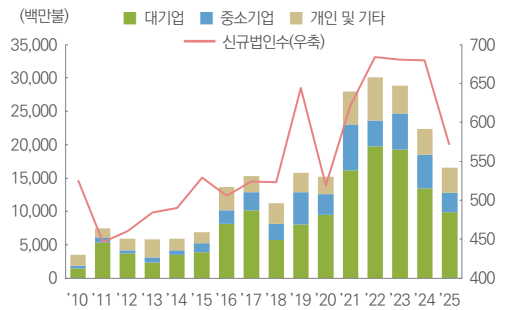
■ 대미 직접투자액은 2010년 35억 달러에서 연평균 14.3%씩 증가하여 2024년 22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다만, 2022년 301억 달러를 정점으로 최근 3년간은 대미 투자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

| 그림 5 |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비중 추이



| 그림 6 | 대미투자액 및 신규법인 수



다. 제조업 대미 직접투자 현황

■ 대미 직접투자에서 제조업이 2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금융보험업 제외^[5])

- 제조업 대미투자는 2010년부터 연평균 16.8% 증가하여 2025년 47.6억 달러를 기록
- 제조업 내 상위 투자 업종은 전기장비 제조업(C28)으로 3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은 16.9%,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은 13.9%로 나타남
 - 상위 3개 업종(C20, C26, C28)의 투자 비중은 약 68%를 차지하며, 본고에서는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함^[6]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총 투자액의 60.5%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은 20.6%, 개인 및 기타 비영리단체 등은 18.8%를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 비중이 79.2%로 더 높고, 중소기업 18.5%, 기타는 2.3% 수준으로 나타남

■ 제조업 대미투자는 미국 행정부의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

-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기조 하에서 북미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
 -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USMCA가 2020년 발효되면서 역내 부품 비중과 원산지 규정이 강화됨
 - 이 시기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대미 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전자부품·반도체 업종(C26)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
- ※ 삼성전자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전공장(2018), LG전자 테네시 세탁기 공장(2019) 등
- 바이든 행정부(2021~2025):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활용한 투자 유인 정책 강화
 - 반도체 과학법(CHIPS Act)^[7]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8]등을 통해 보조금과 세액 공제 등을 수단으로 미국으로의 첨단 산업을 대규모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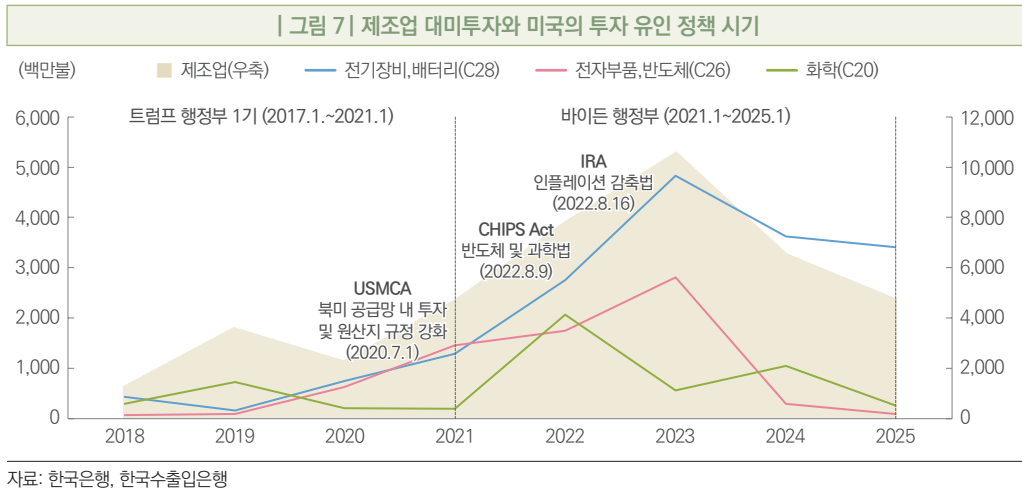
[5] 25년 기준, 대미 투자 금액 중 금융보험업이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타금융업(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기금 운영업 등이 포함) 43%,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57%가 각각 포함되어 있음. 해외 대체자산(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투자는 특수목적회사(SPC)를 경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달한 북미 지역 금융보험업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6] 이하 본문에서는 편익상 제조업명 대신 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를 활용하여 기술하고자 함
 -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화학 및 기초 화학 소재 산업)
 -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핵심 ICT 하드웨어 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이차전자·배터리 및 전력기기 관련 산업)

[7]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022년):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첨단 패키징 시설 건립을 장려하기 위해 약 39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25%의 투자 세액공제 제공하며, 보조금 수혜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8]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년):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보급, 일자리 창출, 노동자 보호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전기차·배터리 및 관련 소재·부품 제조시설을 미국 내 설치·확장할 경우 투자액의 6~30% 세액공제, 미국 내 생산 및 판매되는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첨단 부품과 핵심 광물 등에 대해 생산비용의 약 10% 세액 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전기장비·배터리 업종(C28)은 IRA 발효 시점을 전후하여 투자가 급증하여, 2023년 약 50억 달러 수준의 정점을 기록
 - 전자부품·반도체 업종(C26)은 CHIPS Act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가 상승하며 약 30억 달러를 기록
- ※ LG 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공장(2023년, 약 55억 달러), SK온-포드 합작법인 켄터키 및 테네시주 배터리 생산시설(2023년, 약 92억 달러 정책지원자금 대출), 삼성 SDI 스텔란티스 합작 2공장(2023년), 삼성전자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2022, 약 170억 달러 이상), 소부장기업(동진세미켄, 솔브레인 등, 2022년) 등



■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투자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보조금 기반 투자 유인'과는 차별화된 양상이 전개
- 고관세 회피 및 현지 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 주요 첨단 산업의 생산 설비와 자본의 대미 이전이 더욱 확대될 전망

※ 삼성전자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며,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 투자(미국 정부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 SK 하이닉스 인디애나주 패키징 제조 시설 38억 7천만 달러 투자(미국 정부 보조금 4억 5,800만 달러)^[9]

[9] 지디넷코리아, “미 반도체 보조금 7.5조원 확정받은 삼성·SK, 다음 과제는”, 2024.12.23.

03 국내 설비투자 동향과 기업의 경영 여건 점검

가. 국내 설비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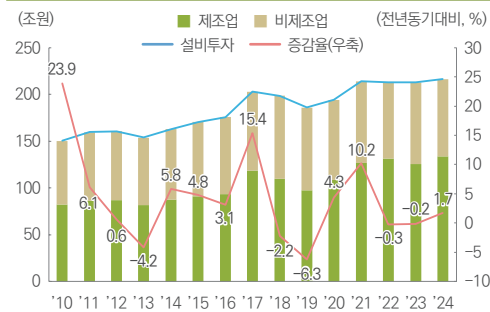
■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 설비투자 규모는 2010년 약 150조원에서 2025년 기준 220조원(실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
-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대규모 설비 확충으로 투자가 크게 상승
- 이후 2018~2019년 업황 둔화 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점차 회복되어 2024년에는 전년대비 1.7% 증가

■ 국내총생산(GDP)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지난 15년간 약 8.9%~10.3% 범위에서 등락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조업 중심의 투자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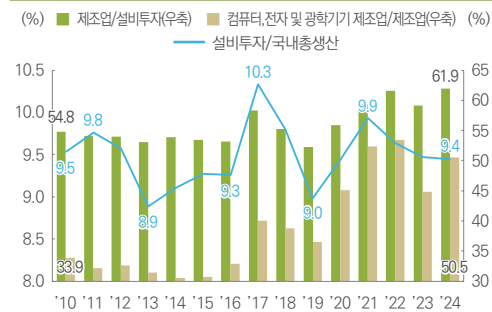
- 설비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4% 수준에서 2024년 62%로 상승하여, 제조업 부문의 자본 축적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조업 설비투자 중,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주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
 - 해당 산업의 비중은 2010년에는 제조업 설비투자의 약 34% 수준이었으나, 2017년 반도체 호황을 기점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2024년에는 약 50% 수준까지 확대되었음

| 그림 8 | 경제활동별 설비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 그림 9 | GDP 대비 설비투자 및 항목별 비중



자료: 한국은행

나. 기업 경영 여건 점검

■ 지난 15년간 국내 기업들의 재무구조^[10]는 부채비율 하락, 현금보유 확대, 유동비율 안정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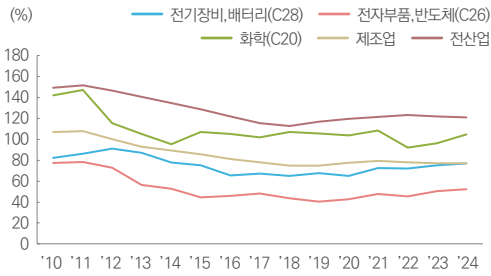
- 부채비율: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전산업 및 제조업 전반에서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
 - 전기장비 업종(C28)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전자부품·반도체 업종(C26)의 부채비율은 타 업종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 현금비중: 총자산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
 - 전산업 및 제조업 현금비중은 5~6% 수준을 보임
 - 전기장비 업종(C28)은 현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특히 2020년 이후 크게 상승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소 하락
 - 전자부품·반도체 업종(C26)은 다른 업종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 기간 동안 3~5%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
- 유동비율: 단기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모든 업종에서 100%를 상회하는 수준
 - 전자부품·반도체 업종(C26)의 유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13~2019년 기간 중 150~180%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최근에는 다소 낮아지는 모습
 - 특히 중국과의 경쟁격화 등으로 업황이 부진했던 석유화학 업종(C20)에서 유동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

■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간별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전산업 기준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0년 이후 대체로 0~10% 범위에서 등락
 - 업종별로 보면 전자부품·반도체 업종(C26)과 전기장비 업종(C28)에서 변동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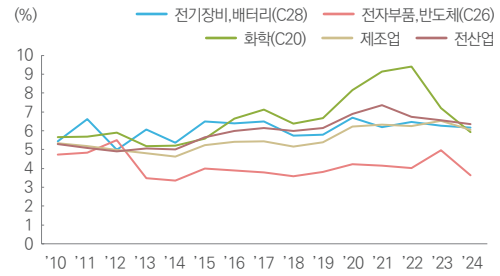
[10]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내 '재무상태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통계는 2007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전체 법인을 모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림 10 |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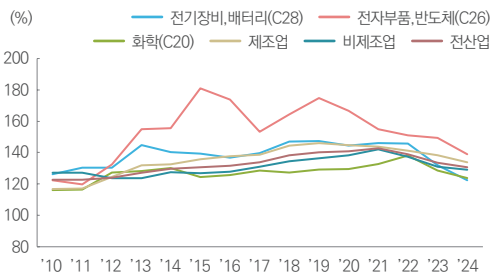
주 1) 부채비율 = (자산총계-자본)/자본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재무상태표'

| 그림 11 | 현금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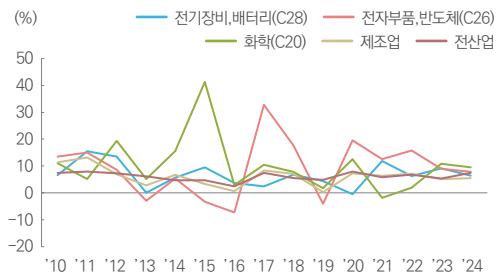
주: 현금비중 = 현금/현금성자산/자산총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재무상태표'

| 그림 12 | 유동비율



주: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재무상태표'

| 그림 13 | 설비투자증가율



주: 설비투자증가율 = 설비자산의 전기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재무상태표'

■ 기업의 재무적 투자 여력과 실제 설비투자 집행 간 일정한 괴리가 존재하며, 설비투자는 재무구조 외에도 산업의 사이클, 기술 변화, 글로벌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그 주요한 결정 요인 중 하나로,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미 직접투자는 설비투자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며 또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절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함

04 대미 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대미 투자기업의 현지 매입 및 매출 현황

■ 우리나라 대미 투자기업의 부품 및 중간재 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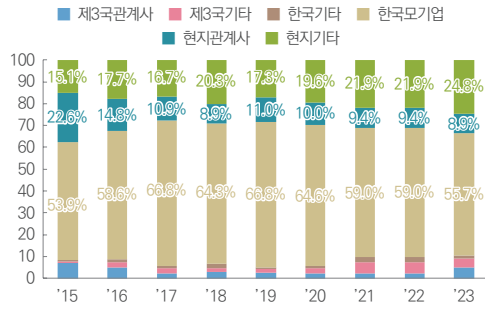
- 대미투자기업의 한국모기업에 대한 부품 및 중간재 의존도는 2015~2023년 중 53.9%~66.8% 정도로 높은 수준
 - 대미투자가 확대되어도 핵심 부품, 중간재는 한국 본사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이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날수록 한국 본사의 중간재 수출도 함께 늘어나는 수출유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국 수출입은행 「2024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수출 유발효과는 112.7%(한국→현지법인)이며, 수입유발효과는 6.3%(현지법인→한국)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106.4%로 전세계 평균 39.5%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현지 기타’ 매입 비중은 늘고, ‘현지 관계사’ 매입 비중은 감소하는 모습
 - 이는 IRA, CHIPS 법안 시행 이후 미국 내 생산 요건 및 공급망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부품 조달의 현지화가 확대된 영향으로 해석됨^[11]

■ 대미 투자기업의 매출은 약 80% 정도가 미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대미 직접투자의 주요 목적이 현지 생산을 통한 미국 내수시장 확보에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이러한 구조는 관세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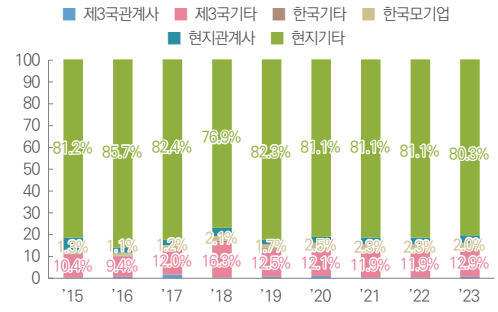
[11]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IRA의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 현지 및 FTA 체결국 업체와의 직접계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테일러 파크 반도체 공장 증설 과정에서 CHIPS 법안의 보조금 수혜 요구로 인해 공정에 필요한 특수가스와 같은 원부자재를 미국 현지 업체로 조달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그림 14 | 대미투자기업 현지 매입 구조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그림 15 | 대미투자기업 현지 매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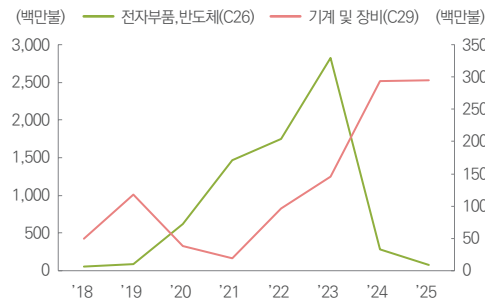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나. 대미 직접투자 확대와 협력업체 동반진출

■ 주요 대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는 협력업체의 동반진출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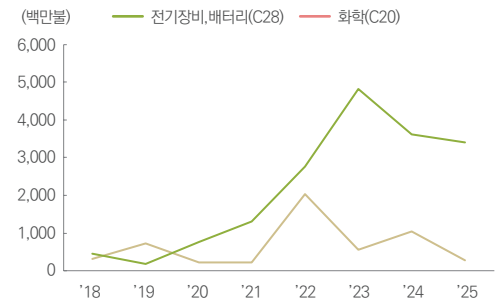
-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해외 지역에 생산시설을 확대 하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기업들도 생산거점을 함께 확장한 사례가 있음
 -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주요 배터리 제조사의 해외 생산 확대에 대응하여 현지 공장 설립 및 증설을 추진^[12]
-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현지 진출도 함께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13]

| 그림 16 | 반도체 및 장비 제조업 대미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그림 17 | 배터리 및 소재 제조업 대미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12] 동아일보, '대기업 해외공장 증설에...국내 소부장 협력사들도 고용 훈풍', 2022.10.07

[13] 매일경제, 'K반도체 새 터전은 미국 '이 땅'...삼성 협력사 전부 모인다', 2025.11.09

다. 대미 직접투자와 국내 설비투자 간 실증분석

■ 앞서 살펴본 대미 직접투자 확대에 의한 효과를 국내 설비투자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예상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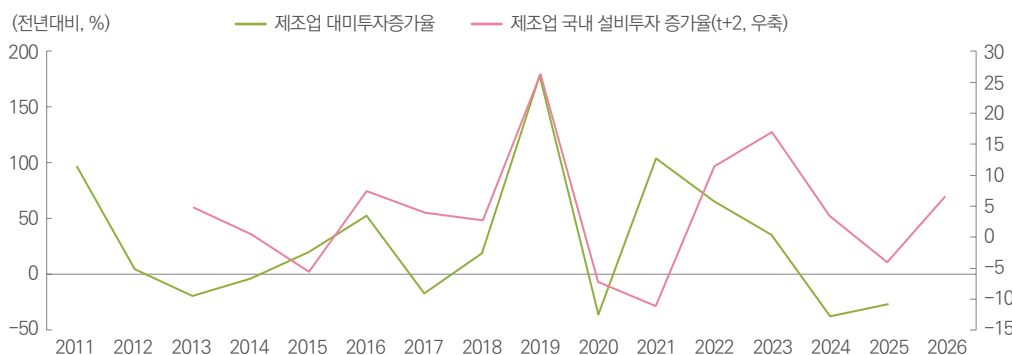
- 첫째, 해외 생산 증가에 의한 보완효과(+)
 - 대미 직접투자 확대에 해외 생산이 증가할 경우, 미국 현지 공장에서 필요한 핵심 부품 및 중간재를 국내 본사가 공급하는 구조가 형성
 - 이에 따라 국내 생산과 설비투자 수요가 함께 확대되는 보완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 둘째, 국내 생산기반 약화에 의한 대체효과(-)
 - 대기업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에 이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은 일부 생산공정이 해외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내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내 설비투자를 대체하는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
- 셋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보완효과(+)
 -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해외 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요를 확보하거나, 국내에서는 연구개발 및 고부가가치 공정 중심의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

■ 이러한 상반된 효과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 단위의 설비투자를 종속변수로 한 실증분석^[14]을 수행

- 먼저 제조업의 대미 직접투자 증가율과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 간의 관계를 비교하면 시차를 두고 함께 움직이는 양상을 보임
 -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2016~2019년 간 두 지표는 약 2년의 시차로 유사한 패턴을 보임
 - 다만 2020년 이후에는 이러한 시차 관계가 2년 이상 벌어지는 모습도 관찰되어, 해외 생산 확대가 국내 설비투자로 이어지는 시점이 다소 지연되는 경향도 관찰됨

[14] 자세한 분석 내용은 [Box]를 참고

| 그림 18 | 제조업 대미투자 및 국내 설비투자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시차를 포함한 패널모형 추정 결과, 전산업 및 제조업 전체에서 대미 직접투자는 2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설비투자를 보완하는 효과가 나타남

- 전산업 기준으로 대미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1% 증가할 경우, 2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설비투자율이 약 0.0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 제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 나타나며, 보완효과를 지지
- 다만, 모형의 추정 계수의 크기가 크지 않고, 산업별 이질성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표 1 | 대미 투자 확대와 국내 설비투자 반응 분석

표본	대미투자(t-2)	p-value	비고
전산업	0.000718	0.0185	보완(+), 유의
제조업 전체	0.000670	0.0305	보완(+), 유의

05 요약 및 시사점

■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산업 정책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CHIPS Act와 IRA 등 투자 유인 정책에 따라 미국 내 생산거점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2025년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 체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대미 투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

■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대미 직접투자 확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됨

- 대미 투자기업의 생산 및 조달 구조를 보면 핵심 부품 및 중간재의 상당 부분을 한국 모기업으로부터 조달하는 구조가 유지, 매출의 대부분이 미국 현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 대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동반 진출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생산 네트워크가 글로벌 공급망 차원으로 확대되는 양상

■ 대미 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보완효과(+)와 국내 생산 기반 약화에 따른 대체효과(-)가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두 효과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분석을 수행

- 분석 결과, 전산업 및 제조업 전체에서 대미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1% 증가할 경우, 2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설비투자율이 약 0.07%p 증가하는 보완적 관계가 확인됨

■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투자 확대와 함께 미국의 현지화 요구 강화,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 정책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투자 구조는 기존과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

- 특히 현지 생산 및 조달 비중 확대 압력이 강화될 경우, 국내 모기업과의 연계성이 약화되면서 보완효과가 축소되거나 일부 산업에서는 대체효과가 확대될 가능성
- 따라서 기존의 실적에 기반한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보완적 관계가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정책 환경의 전개 양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

■ 이에 따라, 향후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생산기반과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정책적 대응이 중요

- 현재 약 60% 수준인 중간재 조달률이 미국의 현지화 압박으로 인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연구개발, 핵심 부품 생산, 첨단 공정 유지 등 고부가가치 기능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산업 정책을 설계할 필요
- 또한, 관계사의 동반 진출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핵심 기술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기반을 강화할 필요^[15]

[15] 2026년 1월 29일, 국회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포함하여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소부장 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같은 기업 지원방안도 포함

[BOX] 대미투자의 설비투자 영향: 패널고정효과 모형

■ 대미 직접투자가 국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산업-연도 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검증

• 데이터 및 분석 단위

- 데이터: 한국은행(ECOS) '재무상태표', Value Search(VS) '기업재무제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 분석 단위: 2010~2024년, 전산업, 제조업, 핵심제조업(C20,C26,C28), 수출/내수 기업 구분

• 변수 정의

- 종속변수: (ECOS)설비자산/자산총계, (VS) 유형자산/자산총계
- 설명변수: 대미투자(차분)
- 통제변수($X_{i,t}$): 매출액성장률, 수익성, 현금비중
- 산업(또는 기업군) 고정효과: μ_i , 연도 고정효과: μ_t , 오차항: $\nu_{i,t}$

$$\text{설비투자}_{i,t} = \alpha + \sum_{k=1}^2 \beta_k \text{대미투자}_{i,t-k} + \gamma X_{i,t} + \mu_i + \lambda_t + \nu_{i,t}$$

| 표 |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

	Model1 (전산업)	Model2 (제조업)	Model3 (VS-제조업)	Model4 (VS-대기업)	Model5 (VS-수출)
대미투자(t-2)	0.0007**	0.0007**	0.0002	0.0000	0.0006
수익성	0.5968	0.8279	-0.9611**	-1.1226**	-3.9698**
현금비중	1.4469	-1.2095	5.0541***	21.5236*	93.2410
매출액성장률	-0.0000	0.0000	-0.0001***	0.0000	-0.0006
관측치	331	300	3,325	1,946	498

주: *** p<0.01, ** p<0.05, * p<0.1

| 표 | 동적효과 패널분석(강건성 검증)

모델	변수	계수	p-value	비고
DLM ^[16] (분포시차)	누적효과($\beta_1+\beta_2+\beta_3$)	0.000351	0.0845	약한 양(+)의 신호, 유의
동적패널 ^[17]	투자율(t-1)	0.610816	0.0000	투자 관성, 유의
	대미투자(t-2)	0.000098	0.0226	보완효과(+), 유의

[16] 대미투자의 1~3년 누적 효과를 보고자 하였으며, 약한 양의 보완 효과를 보이며 유의

[17] 전년도 투자율(t-1)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투자 관성을 측정. 투자 관성 및 대미투자(t-2) 유의

nabO Economy Trends & Issues

경제동향 & 이슈

2026년 3월호 통권 제140호

발행일 2026년 3월 25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6-001572-06

ISSN 3058-9657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